

2019-CR-07

작은연구 좋은서울 19-05

화곡본동 공간 짬의 공동체 활성화 요인과 정책제언

김숙희 김성희 엄태인 조정림



**화곡본동 공간 짬의
공동체 활성화 요인과 정책제언**



연구책임

김숙희 공간 짬 대표

연구진

김성희 공간 짬 운영위원

엄태인 공간 짬 운영위원

조정림 공간 짬 운영위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 연구개요	1
1_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_연구 대상 및 방법	3
02 공간 짐의 현황과 시기별 특성	6
1_공간 짐의 운영 현황	6
2_공간 짐의 시기별 특성과 어려움	11
03 공간 짐의 성과와 그 요인에 대한 질적 탐구	32
1_공간 짐의 성과분석 결과	32
2_공간 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43
04 결론 및 제언	58
1_결론 및 제언	58
2_시사점과 한계	63
부록	64
참고문헌	66

표 목차

[표 1-1] 공간 짬의 위치 및 현황	3
[표 1-2] 연구절차	4
[표 1-3] F.G.I 및 인터뷰 진행내용	5
[표 2-1] 공간 짬의 주요 활동	7
[표 3-1] '공간 운영 가치의 공동인식'에서 드러나는 모습과 요인	34
[표 3-2] '개인 운영위원의 성장'에서 드러나는 모습과 요인	37
[표 3-3] '조직 운영의 유연성'에서 드러나는 모습과 요인	38
[표 3-4] '소통과 갈등회복의 힘 성장'에서 드러나는 모습과 요인	39
[표 3-5] '마을공동체로의 연결'에서 드러나는 모습과 요인	41

그림 목차

[그림 2-1] 공간 짬의 외관 및 실내 모습	7
[그림 2-2] 공간 짬의 프로그램 모습	8
[그림 2-3] 마을 축제 모습	8
[그림 3-1] 공간 짬의 5년 성과분석 개요	33
[그림 3-2] 공간 짬의 5년 성과분석 결과	34
[그림 3-3] 공간 짬의 5년 성과 영향 요인 분석 결과	43
[그림 3-4] 공간 짬 정기회의 사진	48
[그림 3-5] '술 마시고 빔 사줘' 행사 진행	50
[그림 3-6] 마을 축제 모습	51
[그림 3-7] 공간 이용 아이들 사진	57
[그림 4-1] 공간 짬의 나선형 성장	59

01. 연구개요

1_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서울시는 2012년부터 주민들의 이웃관계망 회복과 생활 의제의 호혜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 참여자 최소 12.8만 명으로 마을 공동체 저변 확대에 기여한 점은 높이 살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 공동체 활동의 물리적 거점인 공동체 공간을 2012~2016년 동안 331곳 조성하여 지원하였지만, 자립성이 낮아 2017년 기준 연차별 운영 유지율이 2년 차에 88.2%에서 6년 차에 48.3%까지 점차 낮아졌다(안현찬 외, 2018: 4-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4~2018년 동안 공동체 공간 지원 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6년 차에 접어든 “화곡본동 공간 짬” 사례의 경험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이웃관계망 회복과 생활 의제의 호혜적 해결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주민들의 주체성과 정서적 차원의 연결임을 밝히고, 서울시 마을 공동체 공간 지원 사업이 보다 중요시해야 할 부분에 대해, 공간 지원 사업의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근미는(2019) 마을의 거점 공간은 이웃과의 관계망과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여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공간 짬의 사례를 통해 6년간 단순히 유지 운영하고 있는 원동력과 지원 사업의 한계를 발견하는 수준이 아닌, 물리적 거점으로서의 공동체 공간이 영속성을 가지고 마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간접 지원 방식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2014~2018년 서울시 공동체 공간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었던 공간 짬의 5년간의

운영 현황 및 시기별 특성과 어려움 등에 대한 경험을 정리하여 성과 및 성과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둘째, 공간 운영 당사자와 이용자, 후원자 등 공동체 공간과 연결된 대상자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및 개별 인터뷰를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당사자의 경험을 듣는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 운영의 연속성과 자발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공동체 공간 지원 사업의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2_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 마을 공동체 공간 지원 사업 대상이었던 화곡본동의 공간 짬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공간 짬의 일반적 특성은 〈서울시 공동체 공간 지원사업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안현찬, 2018〉에서 활용한 공동체 공간 운영자 면담조사 질문지에 기초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공간 짬의 위치 및 현황

공간명	공간 짬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본동						
단체유형	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관할세무서에 등록된 단체)						
공간 운영기간	2014년 9월 ~ 현재 ※2019년 11월 기준, 5년 2개월						
공간 구성	활동 공간(주방, 사무공간 등 포함), 베란다(창고), 화장실						
운영위원회	10명(안식년 중인 운영위원 2명 포함) - 1기: 2014년 공간 마련 이전 '아이스레'모임의 관계(5명) - 2기: 2018년 2월 신규 모집된 인원(5명)						
건물주와의 관계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고, 적극적으로 도와줌.						
지원사업선정 여부	지원사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공동체공간지원사업 (공공)	○	○	○	○	○	
	삼성꿈장학재단 (민간)					○	○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기존의 선행 연구 및 기타 자료 고찰,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공간 짬을 직접 운영한 운영위원이 연구진이 되어, 공간 짬을 5년간 운영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는 작업을 하며, 5년의 시간을 정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아래와 같은 방법과 절차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서울시 마을 공동체 관련 선행 연구를 비롯하여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해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화곡본동 “공간 짬”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40여 건의 회의록 및 워크숍 자료,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 제안서 및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 공간 운영의 성과 및 쟁점 등을 도출하였다.

셋째, 운영위원 대상 초점집단 인터뷰(FGI), 이용자 대상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운영위원은 1기 운영위원과 2기 운영위원, 중도탈퇴 운영위원을 구분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문헌 연구 및 회의록, 워크숍, 제안서 등의 서면 자료에 기록되지 못한 개별의 경험적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표 1-2] 연구절차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문헌 및 자료 조사	●	●				
회의록 분석	●	●	●			
F.G.I. 및 인터뷰 기획			●			
질문지 기획			●			
연구 중간평가			●			
F.G.I. 및 인터뷰 진행				●	●	
인터뷰/설문지 진행				●	●	
연구 최종발표					●	
결과보고서 작성					●	●

[표 1-3] F.G.I 및 인터뷰 진행내용

구분	기간	이름	소속
F.G.I 1기 운영위원회 - 1차	2019. 9.	김숙희	공간 짬
		문수진	공간 짬
		정보혜	공간 짬
		조정림	공간 짬
		허인영	공간 짬
F.G.I 2기 운영위원회	2019. 9.	김성희	공간 짬
		엄태인	공간 짬
		오현미	공간 짬
		이미선	공간 짬
		정진영	공간 짬
F.G.I 1기 운영위원회 - 2차	2019. 10.	김숙희	공간 짬
		문수진	공간 짬
		조정림	공간 짬
인터뷰	2019. 10.	강○○	중도탈퇴운영위원
	2019. 10.	김○○	중도탈퇴운영위원
	2019. 10.	김○○	마을 공동주택 주민
	2019. 10.	이○○	봉제산 방과후 협동조합 주민
	2019. 10.	김○○	공간 짬 후원자
	2019. 10.	김○○	공간 짬 후원자
	2019. 10.	강○○	마을 공동육아 모임 주민
	2019. 10.	정○○	마을 눈뜨라공방 대표
	2019. 10.	조○○	마을 공동주택 주민
2019. 10.	박○○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주민	

02. 공간 짬의 현황과 시기별 특성

1_공간 짬의 운영 현황

1) 공간 짬의 가치와 비전

(1) 운영 가치

공간 짬은 “어른과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마을에서 관계와 배움을 통해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며 동네 이웃들과 틈틈이 얼굴 맞대고 정을 나누며 살고자 하는 이들 누구나 놀러 오는 곳”으로 함께 정의하였다. 정의에도 내포되어있듯 공간 짬의 운영 가치는 관계(유대감), 배움, 자기본성이다.

(2) 비전

하나, 재미와 돌봄, 자기 이해를 통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

둘, 배우고, 표현하고, 경험하는 곳

셋, 서로를 수용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드는 곳

넷, 함께 만들어 가고 연결해 보는 곳

2) 공간 짬의 운영 및 활동

[표 2-1] 공간 짬의 주요 활동

구분	주요 활동내용
돌봄	- (평일 13:00~17:00) 무료개방 / 간식 및 활동거리 제공
청소년 활동	- 청소년 마을교육 - 청소년 관련기관 네트워크
마을교육	- 어른: 비폭력대화, 회복적 서클, 타로, 글쓰기, 사주명리 등 - 아이: 목공, 스마일 키퍼스, 인문학, 도예, 요리 교실 등
마을주민 연대활동	- 마을법상 활동 및 주민 재능 나눔을 위한 공간지원 - 공간대관 및 활동지원(공동육아 모임, 지역주민 커뮤니티)
마을축제	- 5월, 10월 주민이 주체적으로 기획하는 축제

(1) 아이들 사랑방

- 운영 시간: 매주 월~목요일 오후 1시~5시
- 운영 내용: 아동 대상 간식 및 활동거리 제공, 마을 이웃들의 공간 지킴이 활동 및 간식 후원
- 월 이용자 수(연인원): 최소(비수기) 80여 명, 최대(성수기) 400여 명



[그림 2-1] 공간 짬의 외관 및 실내 모습

(2) 어른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 운영 시간: 아이들 사랑방 외의 시간
- 운영 내용: 마을 어른 교육 프로그램 및 후속모임(비폭력대화, 타로, 사주명리, 글쓰기, 공동체 춤 등), 마을 어른 재능 나눔 강좌 지원(여성과 창조적 일 프로젝트), 치유와 회복의 문화 실험, 아이들 대상 목공, 도예, 인문학,

스마일키퍼스 등

- 월 이용자 수(연인원): 최소(비수기) 40명, 최대(성수기) 100명



[그림 2-2] 공간 짬의 프로그램 모습

(3) 마을과 연결되는 공간

- 마을회의 및 연대활동 진행(마을 모임/단체 10곳 내외), 마을 모임 대관
- 진행 시기: 마을회의 격월 1회/ 아이들 사랑방 개방 및 프로그램 시간 외
- 진행 내용: 활동 공유, 마을 공동 프로젝트(마을축제, 마을게시판 등) 기획/운영/평가, 개인 및 모임의 마을활동 지원



[그림 2-3] 마을 축제 모습

3) 운영위원회

(1) 구성과 역할

- 대표: 공간 및 단체 운영 총괄
- 부대표: 공간 및 운영위원회 운영 실무 단위 현황 파악 및 의논

- 재정소위: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의 재정 관련 심층 논의 진행, 회계 관리
- 교육소위: 아동/청소년,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심층 논의 진행
- 홍보소위: 후원 관련 사업 진행, 홍보, 대외협력
- 운영소위: 운영위원회 의사결정구조(회의, 워크숍 등) 진행(진행자, 서기)

(2) 운영위원회 의사결정

- 구조: 매주 1회 정기회의, 반기별 비전 및 평가 워크숍
- 내용: 의사결정, 공간살림(지킴이), 교육 프로그램, 마을 연대활동(마을회의, 마을살이 비전 워크숍), 운영비 마련(수익사업, 후원회원 관리), 홍보(짬 카페/밴드, 월간 짬)

3) 운영 자금

(1) 공간 임차보증금

- 임대유형: 월세
- 임차보증금: 5,000만 원(출자금 1,729만 원(1,015만 원(2014년)+714만 원(2015~2018년) + 대출 2,800만 원 + 신용대출 950만 원(2017년 원금 상환))
- 임대료: 35만 원

(2) 월평균 운영비용

- 임대료: 35만 원
- 이자 및 원금 상환: 10만 원(신용대출 원금 상환 전 2017년까지 약 45만 원)
- 제세공과금 및 사무기기 임차료: 세금 10만 원, 전화와 인터넷 3만 원, 복합기 렌탈료 4만 원, 수도요금 1만 원, 정수기 무료(5년 이전 렌탈료 5만 원), 전기 2~5만 원, 도시가스 3천~12만 원 등
- 간식비: 7만 원
- 고정 지킴이 활동비: 30만 원
- 운영위원회 회의 식비: 10만 원
- 비정기 지출: 약 10만 원(물품구입, 수익사업 판매물품 재료구입, 수리, 경조사 등)

▷ 총 약 112만 원

(3) 월평균 수입

- 정기후원회원: 약 10만 원
- 비정기 수입: 약 60만 원(후원금 혹은 후원 물품(간식, 책 등), 수제물품 판매수입, 대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입, 강의 및 마을 탐방, 외부 지원금)

▷ 총 약 70만 원

- ※ 공간 운영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마을연대 단위 일회성 후원 사업을 통하여 필요를 충당함 (빔 프로젝터, 에어컨 구입 등).

2_공간 잠의 시기별 특성과 어려움

1) 사업 이전 _ 모임 형성 단계

(1) 내 아이를 위한 작은 모임, 아이스레

2007년 3살, 4살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한살림 생활협동조합 서부지부에서 ‘아이스레 (아이스럽게, 자연스럽게)’ 모임을 만들었다.

“별나게 먹이니까 애가 몸도 그런 거야”, “너만 애 키우니”

아토피인 아이를 키우면서 먹거리와 생활환경에 신경 쓰다 보니, 그로 인한 선택들은 “유난이다. 별나다”라는 비난을 불러왔다. 아이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만으로는 혼자 하기 외롭고 불안해서 모임을 찾았다.

비난의 소리들을 피해 매주 한 번씩 동네에 있는 봉제실에서 만나 아이들이 놀았고, 긴 여름과 겨울이 오고, 어린이날이 오고, 크리스마스가 오면 뭐 하고 놀까 상상했다. 잠도, 밥도, 술도 같이 하며 오래 오래 이야기 했다. 여름, 겨울 캠프와 어린이날 잔치, 한 해 보내기 등을 하면서 함께 하는 경험들이 쌓여갔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으며 자연스럽게 우정과 호의, 신뢰가 따라왔다.

나도 숙희도 같은 동갑내기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 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낼 게 아니라 동네에서 놀고 그러다 보니 나가볼까 해서 휴대 유모차 들고 업고, 기저귀 가방 챙겨서. 그걸 어떻게 들고 다녔지. 버스랑 전철 타고 다니면서. 뒷좌석에서 앉았다. 유모차 끌면서 동질감 같은 것도 생겼고. 그러면서 영희를 만나게 된 거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 끈끈해졌지.

- 1기 운영위원 허인영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자연스레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을 마주할 때 엄마들마다 관점이 달랐다. 서로에 대한 우정과 신뢰를 주춧돌 삼아 한 달에 한 번 책모임도 하고, 강의도 같이 들으러 다니면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해를 조금씩 넓혀 갔다.

그때 발도르프 교육이니 생태 유아교육이니 내면아이 등을 들으러 다니고 한살

림으로부터 생명살림 가치에 대해 같이 듣고 얘기하고 여기저기 똥가 같이 들으러 다녔었어. 애들이 같이 있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든 그걸 다루어야 하는데 엄마들마다 관점이나 방식이 저마다 다르니까. 같이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었지. 한 달에 한 번 엄마들끼리 만나서 공부하고 얘기하고 그러자고 했었지. 책도 같이 읽고 이야기하고 그랬어.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 '민들레 잡지' 같은 것들. 민들레 출판사 다녀왔던 것도 생각나네. 우리 이야기가 민들레 잡지에 실리기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한살림에 교육분과를 만들어 이런 저런 공부들을 했나봐. 까맣게 잊고 있었네. 이우 학교 만들었던 이희경 선생님 모시고 와서 강의 듣고 한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음양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책도 많이 읽었어. '성배와 칼' '미래에서 온 편지' 같은. 아마 정말 천천히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키우자에서 나 자신의 자연스러움에 대한 이해와 성장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했었던 것 같애.

- 1기 운영위원 김숙희

(2) 아이들을 만나다, 동네를 만나다

2011년, 아이들은 자라면서 보다 많이 바깥놀이를 원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동네 놀이터를 자주 찾았다. 엄마들이 데리고 가야만 할 수 있었던 산놀이와 달리 동네 놀이터에는 혼자 노는 아이들이 곧잘 보였다. 모여 앉아 챙겨온 간식을 먹다 보면 혼자 노는 아이들이 다가오기도 했고, 우리 아이들과 같은 또래인 7살 아이가 3살 동생을 챙겨 화장실에 똥을 누이고 오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같이 간식도 먹고 아이들끼리 어울려 놀다 보니 갈등도 생기고, 집안에서 술에 취해있는 아이의 엄마를 만나기도 하면서 마을 안에 다른 이웃들의 삶도 보게 되었다.

애덤 스미스(1759)는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가정해도 인간의 본성에는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하며 바로 이 때문에 인간은 바라보는 즐거움 이외에는 자신이 얻는 것이 없다고 해도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타인이 행복해질 길 바란다고 했다.

이렇게 아이를 바라보는 안쓰러운 마음들은 한살림 자주활동으로 이어져 마을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놀아보자는 시도를 불러왔다. 우리 아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 아이의 친구가 될 아이들도 함께 보살피고 싶은 마음으로의 확장이었다. 관계성과 아이들(어리고 여린 생명)에 대한 연민은 '언젠가는 떠나야지' 했던 마음, '여기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지' 하는 인식으로 한 계단 올라서도록 도왔다.

만일 내 아이만 데리고 놀겠다 하면 공간이 이렇게 필요 없었다. 그전에 생각했던 건 놀이터도 많이 나가 봤고, 그 안에서 다른 아이들도 봤고, 개네도 안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른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공간이 생기면 거기서 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지.

- 1기 운영위원 허인영

보통은 보고도 지나가고 내 아이 잘 키워야지 하는데 왜 눈감지 않고 하기로 했냐는 질문을 받는데 뒤돌아보면 3살짜리 동생 데리고 와서 놀고 있고, 엄마 보고 왔더니 술 냄새 나고 그랬다고 하니까 애가 제대로 보살펴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던 거지. 돌봐지지 않았다고 기억되는 어린 날의 내 아픔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한 것 같애. 밤에 어디서 애 우는 소리 들리면 마음이 막 아파. 인영이 그랬어. 신경이 쓰여서 싫다고 그랬거든. 지가 마음이 힘든 거야. 안 보기도 힘들고 벌써 봤고, 내 애들은 놀이터로 나가고 있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내 일상에 영향을 주는 한 아이가 등장한 거지.

- 1기 운영위원 김숙희

2012년 한살림 생활협동조합 지역살림이라는 사업은 마을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우리의 욕구를 들여다보고 펼쳐지길 바라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지원했다. 우리의 실제적인 어려움인 아이들을 맡아주었고, 우리의 욕구를 물어봐 주었고, 이미 꿈을 실험해보고 있는 다른 마을과 공간들을 만날 기회를 주었다.

특히 '성대골어린이도서관'을 탐방하면서는 독박 육아 대신, 아이들을 마을에서 같이 키우며 '아이스럽게'라는 가치에 어울리는 아이들의 배움을 만들어가고 싶었다. '마포 줌마네'를 탐방하면서는 '엄마'로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고민하고 탐색하고 펼쳐 보고픈 방향성이 선명해졌다. 시도해볼 용기에 힘이 실렸다.

줌마네 카페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줌마네에서 대표분이 설명하고 있는데 부대표라고 했던 분이 느긋하게 그 뒤에서 자기 먹을 커피를 갈던 모습이 뭔가 여유, 그때 내가 느낀 건 여유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정도 만들어 봤

어 하는 여유. 그분들이 고생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글짓기라는 테마로 화곡동에서 거기까지, 엄마들이 만든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 멋있더라. 글짓기라는 테마라는 것을 가지고 안착했을까가 멋있었어요. 그리고 북한산 밑에 있던 마을에서 동네 청소년 카페, 아빠들이 만든 술집, 목공방을 보면서 인상적이었구고요. 이런 동네가 있구나. 동네가 정말 멋있었어. 조그만 동네 안에 여기저기 여러 군데 다양한 단체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큰 상가에 뭐가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생소했지. 내가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내가 전혀 꿈꾸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본 거지. 그때 멋있어서 내가 아마 따라하고 싶었던 것 같애. 그 사람들을. 따라서 해보고 싶었다. 그 사람들처럼 짬을 그렇게 만들고 싶었다.

- 1기 운영위원 정보혜

(3) 마을을 향한 손 내밀기, 좌절과 갈등

2013년은 한살림 생활협동조합 지역살림 사업의 연장선으로 내부적 소모임이 아닌 마을을 향해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놀아요’ 하는 봉제산 어린이 축제, ‘나도 이런 걸 잘해요’ 하는 엄마들의 재능강좌, ‘마을에서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듣고 싶어요’ 하는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아직은 모르는 이웃들에게 ‘같이해요’라고 하며 손 내미는 것이 어색했고, 마을 이웃들은 원하는 만큼 내미는 손을 잡아 주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 닫혀서 그 마음들이 새로운 갈등을 불러오기도 했다.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았다.

워크숍하고 실제 해보자고 하니까 그만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만나 이야기해보면 이런 말들이 있었어.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싸우기도 할 테고, 그럼 도리어 지금만 못한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인영도 어린이 축제 끝나고 나랑 통화하는데 이러는 거야. “나 이제 그만할 거야. 힘들어. 이걸 뭐 하러 하나 싶어. 우리가 애들이랑 열나게 놀아주고 있는데 그 엄마들 자들끼리 술 마시면서 애들 등 떠밀어 계속 내려보내더라.” 그때도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

- 1기 운영위원 김숙희

2013년 지역살림 때 10명이 같이 했다. 탐방 다니고 워크숍 진행하고 나는 그

들을 당연히 믿었다. 어느 시점부터 이게 구체화되고 이게 어떤 형상화 시키는 시점에서 우리 다섯 명만 남고 속 빠졌다. 그때 되게 배신감 느꼈다. 그거 하나가 돈이라고 생각했다. 돈 얘기 하니까 떠난다. 그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려면 돈을 걸면 되는구나 생각하기도 했다. 놀라기도 하고

- 1기 운영위원 문수진

2) 사업 초기 _ 공간 형성 단계

(1) 마음 편하게 빌려준 공간,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끼리 다시 해보자

2014년은 그래서, 같이할 다른 누군가를 찾는 일에 에너지를 쓰기보다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우리가 재미있는 게 뭐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원하고픈 것이 뭐지, 우리 뭐 하고 싶지를 묻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했다. 같이 모여 이야기하고 상상하러니 아이들이 딸린 엄마들이 찾은 공간에서는 늘 욕먹기 십상이었으며, 아이들은 우리가 이야기에 몰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우리가 펼치고 싶은 것을 직접 시도해 볼 마땅한 공간을 알고 있지도 못했으며 비용도 몸의 수고도 버거웠다.

이 시기에 '화곡마을살이(서울시복지재단)'는 주민주도라는 핵심목적을 가지고 5년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화곡본동 마을에 들어왔다.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으며 비전과 방향성을 경청하고 의논해주었다. 아이들 돌보고 있는 엄마들에게 마을에서 공간을 내주었으며, 회의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다. 우리의 구체적 상상들을 실행해 볼 희망을 보여주며 무조건적인 수용과 적극적 지지를 보내며 비용과 실제적인 품을 지원해주었다.

마을살이 활동 목적의 핵심은 '주민주도'였어.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우선 해보는 경험이 중요해요. 이런저런 제약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의지와 열정이 꺾이게 되거든. 주도적으로 무엇을 해보고 그 경험의 의미와 재미, 성취감을 함께 지지하는 것이 중요했어. "재미있겠다, 좋다,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했지. 근데 그거는 진심이었어.

- 전(前) 화곡마을살이 대표 한순미

우리의 관심은 아이들이 스스로 밥을 짓고, 계란찜을 해보는 한살림 요리 프로그램과 '그대가 여신입니다'라는 우리 자신을 탐색하는 내면탐색 프로그램으로 드러났다. 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우리는 놀 테니,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있다면 여기 붙어라’ 하는 정도로 마을에 문을 열어두었다. 우리의 가치(아이의 고유성이 존중되고 지원되는, 엄마 이전에 나라는 존재를 알고 펼치고 꽃피는)가 활동을 통해서 경험되고, 관계성은 조금 더 깊어졌고, 달라졌으며, 그 관계성 안에 새로운 이웃들이 1~2명 정도 더 늘어났다.

화곡본동 처음 넘어왔을 때, 공동주택도 짓기 전이야. 나 개인적으로는 타로를 시작하게 되고, 짬에 깊이 들어가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지. 그전에는 관계가 없었어. 짬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그런데 짬이라기보다 화곡본동에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짬으로 통쳐서가 아니라 개개인으로 만났지. 본동에 대한 공감도 생겼어. 낯설었는데. (...) 아마 (내가 그 이후로 봉제산 방과후 협동조합이랑) 가 교역할을 자연스럽게 했을 거야.

- 마을 공동주택 주민 조OO

봉제산 방과후 하고도 아라치 때문에 연결된 거야. 나는 그 계기로 깊이 친해진 사람들이 생긴 거지. 정림이도 동네 아줌마였어. 인영 언니를 통해 알게 되는 그 정도의. 정림이 팔찌를 많이 가져와서 누구 나눠주고 하더라. 그런 장면들이 생각난다. 그런 장면들 조합해보니까, 수키 언니랑 교육분과하고 그래서 그랬지만 이렇게 동네 아줌마들이랑 새롭게 만나는 처음 경험이었던 것 같아. 그 전에 나는 그나마 수키 언니랑 그런 계(여신, 성 등) 조금 그래도 익숙한 상태였어. 그런 수업들 계속 받았으니까.

- 1기 운영위원 문수진

그렇게 공간이 주는 안정감과 유익함을 경험하며 ‘우리’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 “우리도 아이들 데리고 편하게 놀기도 하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한살림과 화곡마을살이의 직간접 지원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만남은 공간을 만드는 역동을 불러오고 ‘아이스레모임’은 ‘서울시 공간지원사업’이라는 정보, 절차와 필요한 행정서류 준비에 관한 지원 속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였다. 무엇인가 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다듬어지지 않았던 비전과 기대가 비전워크숍 지원을 통해 명료화되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 확인된 공간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아이스럽게’라는 뜻의

아이들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총 20회(2014년 4월~ 2014년 7월)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사업에 필요한 절차들이 구체화 되었고, 사업 실행 자부담에 필요한 재정을 모았다. 지금의 운영진과 몇몇 주민들이 그곳에 필요한 사무용품과 공간보증금을 출자금의 형태로 보냈다. 그 과정에서 진정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분되었으며 참여에 마음먹은 운영위원들은 여유가 되는 만큼의 출자금을 감수했다. 그 외 운영위원회로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공간의 뜻을 지원하려는 주민 몇몇은 출자금으로 응원을 보내기도 했고, 대표는 전세자금 대출과 개인 신용 대출을 받았다. 보증금이 모였고 월세로 화곡본동 51-31 2층에 공간을 얻게 되었다.

“짬” 날 때 오세요. ‘짬’ 내어 오세요. 일상에 ‘짬’을 주세요’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공간 짬’이 태어났다. 짬은 “마을 어른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을에서 배움과 관계를 통해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길 추구하고, 동네 이웃들과 틈틈이 얼굴 맞대고 정을 나누며 살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놀러 올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안에서 정의되었다. ‘마을, 배움, 관계, 자기본성, 정, 누구나’라는 키워드는 공간 짬의 기본 뿌리처럼 지금도 아주 중요한 지향점이고 방향성이다.

짬은 지금도 아이들이 방과 후에 편히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종일 실내에서 일하는 날들이 많아 운영위원들의 아이들도 함께 있게 되었고, 간식을 직접 챙겨주어야 했다. 그 참에 놀러 오는 마을 아이들과도 함께 나눠 먹게 되었는데, 놀러 오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지속적인 개인지출과 노동의 고단함으로 이어졌다. 간식비 예산, 간식 시간에 간식을 만들어 줄 주민을 찾는 것이 회의에 안건화 되었다. 그 이후로 아이들의 간식 문화는 짬 운영내용에 주요하게 포함되었다.

나는 그랬어. 항상 수기를 만나면 봉제산 아니면 놀이터였어. 우리는 아이들 간식만 가져가잖아. 우리 아이들에게 주다 보면 다른 애도 하나만 주세요 하는데. 관찰하게 되는 거지. 저 애가 왜 자꾸 달라 그러지. 어떻게 보면 배고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부모하고 같이 안 나와 있기도 하고 나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 같이 간식도 나눠 먹고 어느 순간부터 더 여유 있게 챙겨 가는 거지. 내 새끼끼만 챙겨 가면 배고파하고 그러니까. 과일이든 뭐든 싸가서 주는 거 했다가. (...) 짬 열었을 때도 간식을 생각 안 했는데 내 새끼만 먹자 하니 보이잖아. 반히. 그래서 같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 내 새끼 굶기자니 징징거리고 그런 게 시초가 되어 그렇게 간식을 주게 된 거고 어

떻게 보면 운영에 간식비가 점점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 1기 운영위원 허인영

처음에 공간 열고 일 많이 했잖아. 수진이 애들 어라니까, 수진이 계속 바깥에서 사 온 거야. 돈도 그랬고 먹는 것도 불편했지. 가공식품 사고 그래야 되니까. 짬 일 안 하면 집에 있는 거 먹여도 되는데. 우리 애들만 먹이면 3천 원이면 되는데, 3만 원 써야 되는 거지. 논의 안건으로 얘기했어. 돈도 되게 많이 든다 어쩐다. 그때부터 간식 만들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2년 차부터 사업에 간식비 책정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거야.

- 1기 운영위원 김숙희

(2) 어렵다, 우리 공간을 운영한다는 것

2014년 9월 서울시 사업으로 공간 짬이 개소되고 계획했던 사업들을 하나씩 실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 시작했다. 공간을 열고 개소했으나 한살림으로부터의 공간 월세 지원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면서 재정 해결문제가 눈앞에 있었다. 운영위원들 간 친밀함의 정도가 달랐고, 공간 선택, 공간 이름 짓기, 인테리어 진행 등 많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만이 생겼고, 사적인 관계에서 동료가 되다 보니 각자가 일하는 방식에 차이도 드러났다. 어찌 보면 봉사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짬의 사업이 업무가 되어가면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불편함, 처음 경험하는 행정 일(지출결의서의 서류일, 강사를 섭외하는 일, 강사비의 세금처리, 서울시와 구청에서 하는 행사와 교육 등을 참여해야만 하는 일 등)의 부담감, 애쓰며 활동을 펼쳐보아도 당연히 오리라 기대했던 마을 사람들은 찾지 않는 상황들로 내적, 외적 갈등이 가중되어 갔다. 서로의 일과 나의 일을 비교하며 경중이 나뉘기도 하고, 내가 좀 더 하지 싶은 소통 없는 배려는 서로의 수고와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서운함으로, 각자 고립되고 외로워지면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도 힘들어졌다.

○ '사(私)'는 소외되다 _ '공공성'에 대한 기대와 요구

의지하고 있던 단체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 지원해줄 것이라는. 아직도 선명해. 월세 지원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돌아오는 날 마을버스 지나가는 길을 걸어 올라오는데 눈물이 확 나면서 가슴으로 바람이 속 지나가는 것 같은 거야. 어떻게 하

지 이제... 공간은 얻었고 대출도 받았고 이사들 설득하면 될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안 된 거지. “그들이 하려는 게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거 아니냐”라고 했다는 피드백을 나중에 들었어. 5년 계획 다 써서 갔는데. 우리 좋은 걸 하는 건 지원받기 어려운 건가 보다. 뒤돌아 생각해보면 공공성을 강요받는 것 같았어.

- 1기 운영위원 김숙희

○ 운영 자립해야지 _ 마을 밖 홍보 활동에 고달프고 내부는 외롭고

매달 80만 원을 냈어야 했어. 이자랑 원금을 같이 갚아야 해서. 한살림 서부지부에서 역할 많이 해줬다. 각 매장에서 떡 팔아 주는 것 같은 아이디어 내주고 매장에서 떡 팔아주는 거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내게 가장 큰 어려움은 여기 저기 손 내밀러 돌아다녀야 되었고 우리의 일이 어떤 의미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내야 했고 감사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해야만 했고. 내가 속해있는 사람들에게 그제 어디든. 이걸 사달라고 해야 되나 못하겠는데 이러면서. 내가 속한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릴까 말까 주저하고 짬이 나에게 계속 그 경계를 넘게 하는 바닥이었던 거야. 내 이전 삶에서는 안했던 방식들을 하게 하는. 특히 2014년. 그때는 어느 것도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그런데 짬 내부적으로는 계속 싸우는 것 같고 공간 운영자금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밖에서 그걸 어떻게 구해야 하나. 나는 나대로 어렵고, 안에서는 처음 해보는 사업을 하느라 어렵고 그래서 더욱 갈등이 많아지고 내 어려움을 얘기할 곳이 없는 거야. 다 혼자였다는데. 아. 모두가 혼자였구나. 그런 시간들을 거쳤구나 싶다.

- 1기 운영위원 김숙희

맨날 힘든데 싸워. 재미가 없었어. 부딪히는 걸 보는 게 힘들었어. (...) 매장 가서 떡 파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했어. 너무 창피했어. 우리 아버지 사과도 안 파는데. 짬이 생기고 나서 수익사업 하려니 사과즙을 구걸하고 있고

- 1기 운영위원 정보혜

그 당시에는 막 세워졌기 때문에 나에게 짬의 자립이 중요했다. 자립을 위한 돈을 좀 모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했는데 또 우리 안에서, 일을 하면서 생기는 피로도. 각자 힘들음 공유하지 못했던 것. 일에만 매달린 것 같다. 일

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성취를 위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그것을 해나가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그 정책을 따서 수행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잊은 것 같았다.

- 중도탈퇴운영위원 강○○

○ 처음 해보는데, 잘해야 하는데 _ 익숙하지 않은 과중한 업무, 정보 부족 9월 달에 개소식을 하고, 내가 지킴이를 하게 된 거지. 거기다가 회계까지 같이 하게 된 거지. 그때는 10시부터 6시까지 여기를 봐야하는 상황. 중간에 보혜, 수진이 간식 만든 거 가져와 주고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혼자 이 성격에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다. 회계하느라 서마중¹⁾에 전화하고 구청에 전화하고 둘 다 모를 때야. 그러다가 마을넷 사무실 가서 배워 와서 여기서 다 하고 그때 좀 많이 힘들었다. 오후에는 아이 어린이집 달려가서 받아서 풀어놓고 지킴이에서는 혼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는 스티프도 없었는데 빗자루 다 쓸고 무릎 꿇고 걸레로 닦고 1시간 청소하고 나면 흠뻑 젖는 거지. 회계하면 애들 올 시간이야. 간식해야 해. 그때는 애들 20 몇 명, 30명. 애들 먹고 나면 그릇 씻어서 내놓고, 너무 힘들었거든. 혼자였던 거지. 주위에 회계 쪽으로 아는 사람도 없고 외부에서 손님 오거나 이랬을 때 그 사람들 응대해야 하고, 아이들도 응대해야 하고.

- 1기 운영위원 허인영

○ 돈도 안 되면서, 니 애나 잘 봐 _ 친밀한 관계로부터 이해되지 못하는 나는 2014, 15년에는 성당 일도 같이 하고 있어서 성당 일, 학교 일 다 하나씩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활동이 많았어. 학교에는 어쨌든 낮 시간에 움직이고 성당은 주말에 움직이는데, 신랑이랑의 갈등이 그때가 최고조였지. 아이들을 위한 일이지만 아이들 두고 밖에 나가 있고 낮에는 활동하고 저녁에는 친목도 모를 위한 술자리가 있으니까. 나는 돈벌이가 아닌 거에 할애를 하는 시간들이 나 스스로에게도 떳떳하지 못했고 남편이 나를 봤을 때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애들은 라면 먹고 한 번은 계란찜해주고 저녁에 나가야 하는데 신랑이 얼굴이 굳어져서 “애들 이렇게 저지같이 먹고고서는” 얘기하더라.

1) 서마중이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출입말로,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체계적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 1기 운영위원 조정림

나는 14년도가 나에게서는 수호 돌, 수현이 유치원 입학, 수화 학교 입학. 그때다. 남편이랑 사이도 안 좋구. 몸이나 개인적인 것들 너무 힘든 시절. 이 일 자체는 나에게 너무 재밌고 포부도 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여기에 애들 대안 학교 만들리라. 그런 게 있어서 일이 너무 재밌었다. 나는 어느 부분을 맡았냐면 은 숙희 언니가 관계나 이런 거 밖에 홍보하고 대표역할의 큰 하드웨어를 만들 때 나는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 그건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잠을 못 잤지. 아이들 중간에 깨고 그림에도 가장 어려웠던 건. 이 일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들 때문에 양껏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조금만 거야. 해야 하는데 밤에 애들 잠에서 깨고

- 1기 운영위원 문수진

나는 애 아빠랑 부딪혔어. 애 아빠가 짬이라면 되게 싫어해. 그때는 애 아빠가 그래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으니까 그 말 무시하고 했던 거지. 집에 가면 스트레스 받고 진짜 많이 싸웠지. 여자가 나돌아다니는 거 자체가 싫었던 거야. (그 사람 생각에) 여자는 살림만 해야 돼. 돈 안 벌잖아. 그럼 니가 애 키우고 살림해야지 쓸데없이 동네 아줌마들 만나서 모의하고 있고 애 아빠는 우리가 회의한다 그러면 혀를 차. 무슨, 여자들이 회의해봤자 맨날 수다 떨고 있겠지 생각하는 거지.

- 1기 운영위원 허인영

○ 아이 함께 키우며 어울리던 언니, 동생이었는데 _ 일하는 관계로 전환 어떤 내 감정을 표현하기도 어려웠고 '이게 지나가면 괜찮겠지'를 2년 동안 했던 것 같애. 서로의 이야기를 하기에는 여력이 없는 느낌이었어. 나에게서는 내 것을 이야기하거나 내 감정이 어떻다거나 내 기분 나쁨을 그때그때 이야기 못 했던 걸 집에 가서 다른 방식으로 풀려고 했던 게 좋지 않은 방식이었고 그제 악순환이 되었고. 이렇게는 못 하겠다는 생각 들어 쉬는 것도 있고 인영 언니와 지킴이 하면서도 서로의 스타일 맞춰가는 것도 수진이와 무언가를 맞춰가는 것도 힘들었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서로 조심하려 하니 서로 말수

가 줄어들고 이러니까 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다.

-운영진 1기 조정림

나도 보혜가 나랑 어떻게 만났냐 하면 아이들 이렇게 봐주며 만났단 말이야. 보혜가 꼬맹이들 좋아해서. 동네 되게 친한 엄마로 만났는데, 그 때 개에게 불만 없었어. 너무너무 좋고 나보다 한 살 어린데도 언니처럼 따르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일 하다 보면 스타일이 달라서 틀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냐 하면, 개의 모든 걸로 갔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가게 된 거야. 15년, 16년 요사이에는 관계로도 만나고 관계를 하는 와중에 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넘어 다녀야 한다는 거가 어려웠어. 난 되게 어려웠고 말도 못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들도 사적으로 만났을 때는 아닌데 일로 날 만났을 때는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 비난하기도 하고 내 방식에 대해서.

- 1기 운영위원 문수진

오랜 관계를 맺어오며 함께 시작했던 운영진이 탈퇴하였고 이는 남아 있는 운영위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3) 내부 역량 회복이 더 중요하다

2015년부터 상반기 비전워크숍이 포함되어 짬 방향성과 운영위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그것을 공유했다. 참여되지 않는 주민들을 향한 맹목적 구애성 홍보가 아니라 운영위원 욕구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내부의 역량을 회복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진행하였다. 잦은 술자리 같은 비공식적 소통의 장은 힘든 시간들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왔다. 함께 하는 활동들은 경험의 축적을 낳았으며, 짬 내부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루기 위한 교육들을 기획하여 함께 공유해감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을 촉진했다.

2014년에 이어 자기이해나 소통, 연결을 중심으로 한 비폭력대화, 회복적 정의, 공동체 춤, 꿈투사 등을 지속해서 열었다. 이웃들과 함께 만나 울고 웃는 즉흥공감극장, 자연농 다큐, 치유음악, 공감부엌 등도 진행했다. 소소하게 함께 모여 손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핸드메이드 강좌들도 열었다. 만들기 강좌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넓은 확장 의 계

기가 되었고, 지속적인 자기이해 및 소통 프로그램과 주제 있는 공연들은 어느새 낯설이 아닌 “짬”만의 고유성으로 여겨지기 시작하고 자리 잡게 되면서 깊은 연결과 유대감으로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 공간지원사업 3년 차는 조금 더 마을과 연대하여 어린이축제, 벚골축제, 마을 회의를 같이 기획하고 참여하며, 짬이 가진 주제, 지향을 마을 안에 조금 더 포함시키게 되었다. 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던 공동체 춤이 마을축제에서 주민이 함께 모여 어울리는 공동체 춤으로 확장되고, 마을 단위에서 ‘마을 게시판’ 만드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여 책임을 맡게 되기도 하였으며, 부천시 “고강 아동·청소년 지원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회복적 서클’을 심화회기까지 진행하였다.

3) 사업 후기 _ 공간 안정화 단계

(1) 놓치지 않고 이어오는 활동들

2017년과 2018년은 공간지원사업 4, 5년 차이이며, 사업비는 1/3로 축소 지원되었다. 축소된 공간지원사업 예산 속에서도 공간 짬의 가치를 상기할 교육들(회복적 정의, 회복적 서클, 비폭력 대화 심화)은 지속적으로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공간지원사업과 별개로 외부단체(화곡마을살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아 짬 내부 운영위원의 역량회복을 돕는 교육(몸 워크숍, 사주명리, 비전워크숍)도 지속하였다.

3년간 짬을 통해 만나 유대감을 형성했던 마을 안 6명의 여성들이 연대하여 각자가 나눔 가능한 분야(NVC, DISC, 타로, 주민리더십) 등을 접목하여 ‘창조적 일과 여성’이란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주민들의 소모임이나 재능강좌들을 응원하기 위한 지원들을 사업에 포함하여 이는 안뜨게, 후루꾸로 배우는 사주명리, 하우스맥주 만들기, 향초 만들기, 천연비누만들기 등 서로의 재능을 나누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짬에서 기획되어 진행된 교육프로그램들은 운영진 내부나 마을 안에서 짬의 가치(자기본성, 유대감)가 공유되는 동시에 깊은 유대감을 가진 관계망들을 만들어 냈다. ‘창조적 일과 여성’은 마을 안에서 혹은 마을 밖에서 엄마의 삶을 살고 있으나 여성이 가진 창조성에 대한 응원과 지지의 연결망을 보여주었으며, 자발적 소모임과 재능강좌는 일상의 소소한 재미들이 공유되면서 불특정 주민들이 엮어지고 관계가 넓어졌다.

예산축소로 사업에 포함되기 어려운 이전 짬의 교육(타로, 비폭력 대화 입문)은 새로운 주민들의 관심과 주도로 자발적으로 기획되거나 혹은 사업과 상관없이 짬에서 자체 기획되어 마을에 오픈하여 진행하였으며 같이 공부했던 마을주민들이 강사로 초대되면서

새로운 관계망들로 확장되어 갔다.

이런 연결의 망은 새로운 사업 혹은 활동(활동지원사업, 즉흥공감극장, 삼성장학재단청 소년사업, 공간대관)들로 이어지고 새로운 운영진2기를 모집하는 디딤돌이 되었으며, 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함께 보살피는 후원자들이 되었다.

처음에 (비폭력대화)교육 듣고 그 이후로 짬에서 파는 거 많이 샀지. 이용자 겸 후원자. 원래 박원순 시장의 마을이야기나 몬드레곤 같은 협동조합 그런데 관심 많았거든. 관련해서 책도 많이 읽었고 마을에서 작은 도서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짬에서 하는 교육이나 파는 물건들에(...) 내가 하고 싶은 가치들, 보아왔던 가치들, 아이들을 키워왔던 가치. 마을 안에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자. 이런 게 보였던 거지. (...) 윤이와 현이가 있어도 비난으로 돌아오지 않고 포함되는 것.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는 어른들. 내가 원하는 것과 닮은, 그런 게 좋았지.

- 2기 운영위원 김성희

(2) 운영의 어려움을 마을에 드러내기

공간지원사업 4년 차가 되면서 짬은 지난 3년간의 활동으로 마을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회복과 성장, 연결과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마을로 확장되어 외연은 넓어졌지만 활동한 운영위원들은 몸도 마음도 소진되어 내부 갈등도 깊어지고 잠시 쉬어가는 사람, 이사 가는 사람 등 실제 인력은 6명에서 3명으로 감소되었다. 3년간의 경험으로 업무 진행의 효율성, 사업비 축소, 운영위원들의 에너지 소진 등을 이유로 월 4회의 회의는 월 2회로 조정되었다. 인건비가 줄어들어 고정적으로 공간을 지킬 활동가가 없어지고 운영진들은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수익구조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품이 외에도 공간 지킴이로서의 역할까지 가중되었고 재정적 어려움도 뒤따랐다. 더 이상 짬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힘들어졌고, 온·오프라인 마을 관계망을 향하여 운영에 대한 지원요청을 드러내기로 하였다.

올해부터 짬이 정해진 지킴이 없이 짬을 통해 만난 친구들과 함께 돌아가며 공간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한 달에 1~4회 가능한 정도만 마음과 품을 내어 마을의 아이들도 만나고 짬을 통해 유대와 애정, 그리고 자기성장을 나누실 분들을 환영

합니다. 공간을 쾌적하게 보살피기 위한 청소와 원할 때 가끔 아이들 간식 준비를 위한 품, 환대하는 마음 정도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소통문

새로운 잠 운영위원을 모시고 싶어 잠을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잠이 지향하는 가치, 잠을 함께 한다는 것에 어떤 축하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질문도 받으며 이야기 나누는 자리입니다. 잠을 애정하며 가슴에 불씨 함께 지퍼볼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운영위원까진 아니지만 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궁금했던 질문도 가지고 오시고 이야기 들어도 보면서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 도착이 될는지 같이 기다려 볼까요^^ 오실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소통문

2014년에 개소한 잠이 올해로 5년 차가 되었습니다. 잠에서 만난 이런저런 사연들이 씨앗이 되어 공간 안엔 슬픔과 기쁨이 따뜻한 에너지로 피어나고 이제 누가 보아도 '이 꽃이 잠이로구나' 할 것 같습니다. 환대하는 에너지와 움직임 속에서 앞으로는 많은 삶이 나누어지겠죠^^ 봄 지나 이제 곧 여름, 중고 에어컨을 여러 번 달아 보았지만 늘 말썽이 일어 올해도 걱정입니다. 이제는 새 에어컨을 사야겠다고 굳게 결정은 하였지만 1년 살림살이를 위한 곡식도 필요하여 잠을 사랑하는 분들로부터 후원을 요청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시원한 바람으로 지지할 에어컨을 잠 식구로 환영하는 데 기쁜 마음으로 보태실 여유 발견하시면 다음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에어컨+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에어컨이 잠의 새내기 지킴이가 될 거예요. 2018년 4월 24일~5월 6일까지 2주간 진행하겠습니다. 국민 : 094701 04 328614 잠

- 온라인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소통문

공간을 돌보는 데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초대하기 위해 공간 지킴이를 마을에서 모집해 보려고 하였고, 마을 주민들에게 잠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후원(후원금, 간식, 물품 판매 등)을 요청하였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운영진을 만나기 위해 회의 논의안건으로 다루어 우리의 어려움, 기대, 그리고 두려움을 나누었으며 그 결과로 잠 오픈하우스를 열었다.

마을주민들이 번갈아 가며 공간 지킴이가 되고, 공간가벽 철거, 에어컨 설치, 빔 프로젝터 구입 등 공간의 어려움이 함께 보살펴졌고, 새로운 운영진 6명이 구성되었다. 어려움을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해보는 시도는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쳤다. 마을에서의 관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응원을 받았으며, 짬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마을 안에서 우정과 호의를 갖는 연대의 관계로 이어졌다.

(지킴이 하게 된 이유는) 치유가 운영진 하면서 지킴이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리고 마을에 더 들어가려고 (지킴이 하면서 보람 있었던 건) 짬에서 만나는 아이들과 길에서 인사를 주고받고 이런 거. 현지도 크면서 이 동네에서 지내게 되면 아는 어른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 마을 공동육아 모임 주민 강OO

(3) 늘어난 식구, 새로운 운영위원

아이들을 키우면서 관계 맺고 언니, 동생 하던 1기 운영위원에 비해, 2기 운영위원들은 공간 짬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만나게 된 이웃들이었고, 그들이 포함된 짬 회의구조는 조금 더 공적이고 체계화되어 갔다. 사람들이 많아지니 아이디어와 품도 늘어 새로운 활동들도 펼쳐졌으나, 서로 관계의 깊이가 다른 데서 오는 어려움이 발견되었다.

○ 새로운 운영위원으로 인한 소통의 변화

새 운영위원들이 들어옴으로써 사람들이 많아졌잖아. 너무 개인적인 어떤 것들로 인해서 회의를 했다면 지금은 이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게 된 것 같아. 몇 명에서 이야기하면 짜증 내기도 하고 불만 내비칠 수 있었다면. 타자성이 많이 생기면서 이들은 좀 더 조심스럽게 내 얘기를 표현하는 거지.

-1기 운영위원 조정림

운영위원 1기와 2기 운영위원들의 경험 차이, 관계의 깊이 차이, 생애라이프 주기가 다른 지점들이 내적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였고, 운영진 안에 소집단들이 생겨서 누군가는 소외감을 느끼게도 되었다.

○ 새로운 운영위원에 대한 1기 운영위원의 어려움

새로운 운영위원을 뽑았을 때 나는 안 쳐다보리라 결심했어. 어떤 행동을 해도 안 쳐다보리라. 많은 이야기 안 했어. 너네도 한번 해보라고 우리도 초창기 때 실수 많이 하고 우리가 했던 실수 그대로 하는데 안 쳐다보고 귀 막으리 이랬던 것 같아. 너네가 좀 해보자 하는 거는 안정적으로 여기에서 해보라고 우리는 그게 없었으니. 너네가 하고 싶은 것 좀 해봐. 경험해야 다른 걸 쳐다보는 기회가 생기니까. 하고 싶은 게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경험해 봐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 내 화두가 뭐였냐면, 또 나가면 어떡하지? 나가면 우리는 충격적이고 상처인데. 새로운 운영위원 뽑지 마 이랬거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내가 지쳐서 태클 걸 것 같았다. 니네 2기 하고 싶은 거 많았는데, 눈 반짝이고 내가 뭔가 나오겠구나 싶었다. 너네들은 하고 싶어서 들쭉이는데, 불씨도 안 나온 상태에서 내가 끼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안 보고 안 듣고 하리라 했으니 내가 뒷걸음해서 밖에서 바라만 보자 그 생각이 강했다. 2기에게는 내가 말하는 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이 사람들(1기)은 내가 익숙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말하는 목적을 알거든. 이해를 하거든. 2기는 나를 알까라는 거지. 그럼 내가 또 부연 설명해야 하고 그때는 말로 계속 뭐가 하는 게... 피곤했지.

- 1기 운영위원 허인영

나는 한동안 2기를 받기 전에는 내가 짬의 행동대장같이 그랬던 말이야. 2기들이 일들을 막 만들고 이랬을 때 나는 행동대장처럼 했는데 못 따라가겠다는 거야. 근데 아마 그때는 학교도 들어가고 삼성도 그때 하고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바쁘기도 하나까 짬 일을 못 따라갔어. 개인적으로 큰 두 가지를 못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도대체 카톡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도저히 카톡을 못 보겠다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 전에 내 사이즈와 스케일을 넘어선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잔잔하게... 큰일이 한 개 있으면 같이 하는 스타일들이었어. 지금은 다들 큰일을 다 맡고 있고, 큰일 할 때 몇 명 붙어서 같이하고 방식이 바뀐 것 같애. 그래서 좋은 점은 나도 이제 이용자가 될 수 있게 된 거지. 2기들이 차려준 그런 어떤 밥상 이런 거에 이용자가 될 수 있어 재밌기도 했는데. 그걸 또 부정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의무감, 책임감 어떤 애정 같은 것은 되게 많이 감소하기도 했어.

우린 거의 자매가 돼서. 너무 가까운 거야. 감정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확 쏟아붓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근데 새로운 인물들이 오면서 공적인 걸 갖추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 그러면서 나에게도 수진과 같은 걱정이 있는 거야. 가장 놀랐던 게 봉제산 어린이 축제한 거. 다 다른 소속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소속에 들어가 버린 거지. 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가 느껴지지 않았어. 짬에 소속되어 있어서 짬으로써의 뭔가 필요한데 이전의 소속된 곳으로 들어가니 여기 아무도 안 남는다. 책임성이 가벼워지는 건 아닐까, 얼마나 내부자로서 있는 건가는 내 가장 큰 걱정이야.

- 1기 운영위원 김숙희

○ 2기 운영위원의 어려움

적응을 못 했지. 의욕이 앞섰고 1기가 단단해 보였다. 오래 만나며 깊이 연결된 그 어떤 게 있었어. 내가 한 발자국 들어가는 노력을 못 했고 전체를 잘 알고 의견을 내야 한다는 스스로의 성향도 작용한 건데.

- 중도탈퇴운영위원 김OO

초반에는 보조자 같은 느낌이 있었어. 같이 운영한다기보다 우리는 수습기간처럼 보내면서. 회계 등등. 애매모호한.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것도 아니고 권리도 애매한 위치에서의 어려움. 회사는 아니잖아요. 딱딱 떨어지는 규칙이 아니라 역사에서 경험에서 누적에서 오는. 그 경험을 우리는 몰라. 이 경과를 모르니까 이해하는 어려움이 있었지. 이 안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뭐가 역사가 있는 것 같은 거야. 일반 회사라면 그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간결한 문구로 규칙을 파악하면 되는데 사무적인 공간이 아니니까 역사와 결과로 지탱해온 곳이니까.

- 2기 운영위원 이미선

여기는 5년 동안 이렇게 왔구나. 그렇게 되는 곳이거나 생각해온 것은 있었지만. 리카랑 비슷한 마음이 들었던 게 관계의 어려움..

- 2기 운영위원 오현미

운영위원으로서 지킴이를 할 때 짐의 가치, 본성대로 살아가게 아이들을 안내해야 되는 사람이어야만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우리 아이 여기 안심되는 공간이라 보았는데 남의 애도 내가 그렇게 맞이해 줘야 되는 거니까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죠.

- 2기 운영위원 정진영

개인적 어려움에서 시간 스케줄이 있었는데 초반에 밤낮, 성희, 리카가 애들이 있고 세 사람의 주고받는 시간이 부럽기도 하고 참석은 어렵고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의 유닛들이 소모임이 형성되는 건 당연한 건데 공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데 깊이의 차이가 생겨서 그게 과제인 것 같아요.

- 2기 운영위원 이미선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이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즐거운 상상들도 되는데 누군가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 2기 운영위원 정진영

그 사이를 메워 나가기 위해 누군기들은 기회를 내어 자주 술자리를 만들었다. 회의시간에 개인으로서의 삶과 짐이라는 공동체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묻고 표현하고 경청하고 수용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지원할 수 있는 해결을 찾기 위해 안전화하여 의논하였다. 짐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회의문화는 조직의 갈등들을 다루어 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비전 워크숍들을 통해 짐의 가치와 목적을 다시금 서로 공유하는 일로 운영진들 사이의 조화를 계속 찾아갔다. 그 과정 속에 운영위원들 간의 우정과 애정이 쌓여가고, '내가 짐에 속해있구나' 하는 소속감도 같이 다져졌다.

내가 잘 포함되었다고 판단이 되니까 어려움을 제기했다. 아이들 액피 가지고 놀 때 규칙 좀 정해 달라. 간식도, 대관규칙도 모호하니 정해달라고 제기했고 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 2기 운영위원 이미선

밤에 따로 이야기할 때 저한테는 배움이 된 것 같아요. 중요하게 여겨주는 거.

그래서 조직에 대한 믿음, 신뢰가 생겨서 그런지 순간순간 가질 수 있는 불만이
다 상쇄되는 것 같아요.

- 2기 운영위원 오현미

4) 사업 종료 이후 _ 공간 자립 단계

짬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의논하고 사람들을 엮어낼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곳, 관계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도와주세요' 노크 할 수 있는 곳,
아이들을 조금 더 수용하고 존중해야 할 것 같은 곳, 엄마 이전에 한 사람으로 나에 대한
이해와 탐색 그리고 성장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곳, 마을에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같이 협력하고 싶은 곳으로 점점 자리매김하였다.

짬은 사랑방 같은 곳이야. 따뜻한 아랫목 같은. 꾸밈없이 조미료 없이 내 모
습 그대로 만날 수 있어.

- 봉제산 방과후 협동조합 주민 이OO

(짬은) 주민센터에서 새마을부녀회 같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줄
아는 (...) 내적으로 힘들었을 때도 도움 많이 받았고, 외부로 내 에너지를 표
출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줬다고 계속 비폭을 하거나 숙희랑 상담을 하거
나 태인이랑도 계속 얘기했고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지금쯤이면 내가 조금
움직여도 되겠다 생각했고 지금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도움과 상담을 많이
받았고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

- 마을 공동육아 모임 주민 강OO

한 달간 비전 워크숍²⁾을 진행하여 공간지원사업 종료 이후 짬의 방향성을 재구성하고

2) 2019 공간 짬 비전 워크숍 질문

- ① 비전 워크숍에 대한 기대, 바람은?
- ② 요즘 내 개인이 집중하는 가치는, 중요하게 여기는 비전은 무엇인가?
- ③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있나?
- ④ 내가 짬과 연결하면서(짬 안에서 짬 밖에서) 충족되었던 순간이 있었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가치와 연결되었나?
- ⑤ 현재 내가 짬에서 기꺼운 마음이 드는, 관심있는, 열정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 ⑥ 짬이라는 조직의 목적과 핵심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⑦ 짬이라는 조직 속에서 내가 활동하는 모습의 현재상, 미래상: 5년 뒤의 짬 안에서의 미래를 상상해보자.

구체화하였다. 1) 재미와 돌봄, 자기이해를 통해 치유하고 회복하는 곳. 2) 배우고 표현하고 경험하는 곳. 3) 서로를 수용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드는 곳. 4) 함께 만들어가고 연결해 보는 곳. 짚은 이러한 비전에 맞는 ‘놀이’와 ‘안내’의 다양한 활동을 만들고, 마을의 남녀노소로 대상을 확장·연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마을 문화실험장으로 명명하였다.

고민을 들어주고 응원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고민 우체통, 함께 밥 먹으면서 자기를 표현하고 그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안전하게 들리고 연결이 일어나도록 돕는 마을밥상, 마을의 갈등 중재자로서의 전문성을 키우며 역할을 해나가는 활동 등을 상상해보고 있다. 이렇게 짚은 아이들의 본성이 꽃피워지는 공간, 어른들이 회복하고 성장하는 공간, 마을에서 즐거운 일상과 대안을 시도하는 마을 문화실험장을 지향하고 마련하고자 한다. 그렇게 회복하고 성장해가는 어른들이 마을에서 실험하고 시도할 수 있도록 짚이 기여하고, 그런 어른들이 아이들을 만나고, 그런 마을에서 아이들이 자라길 바란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키움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을과 함께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짚이 몇 사람의 열정과 희망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5년간 짚의 경험이 정리되어 짚의 역사, 성과,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자료가 되어 짚 공간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한편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 공간들에도 쓰임이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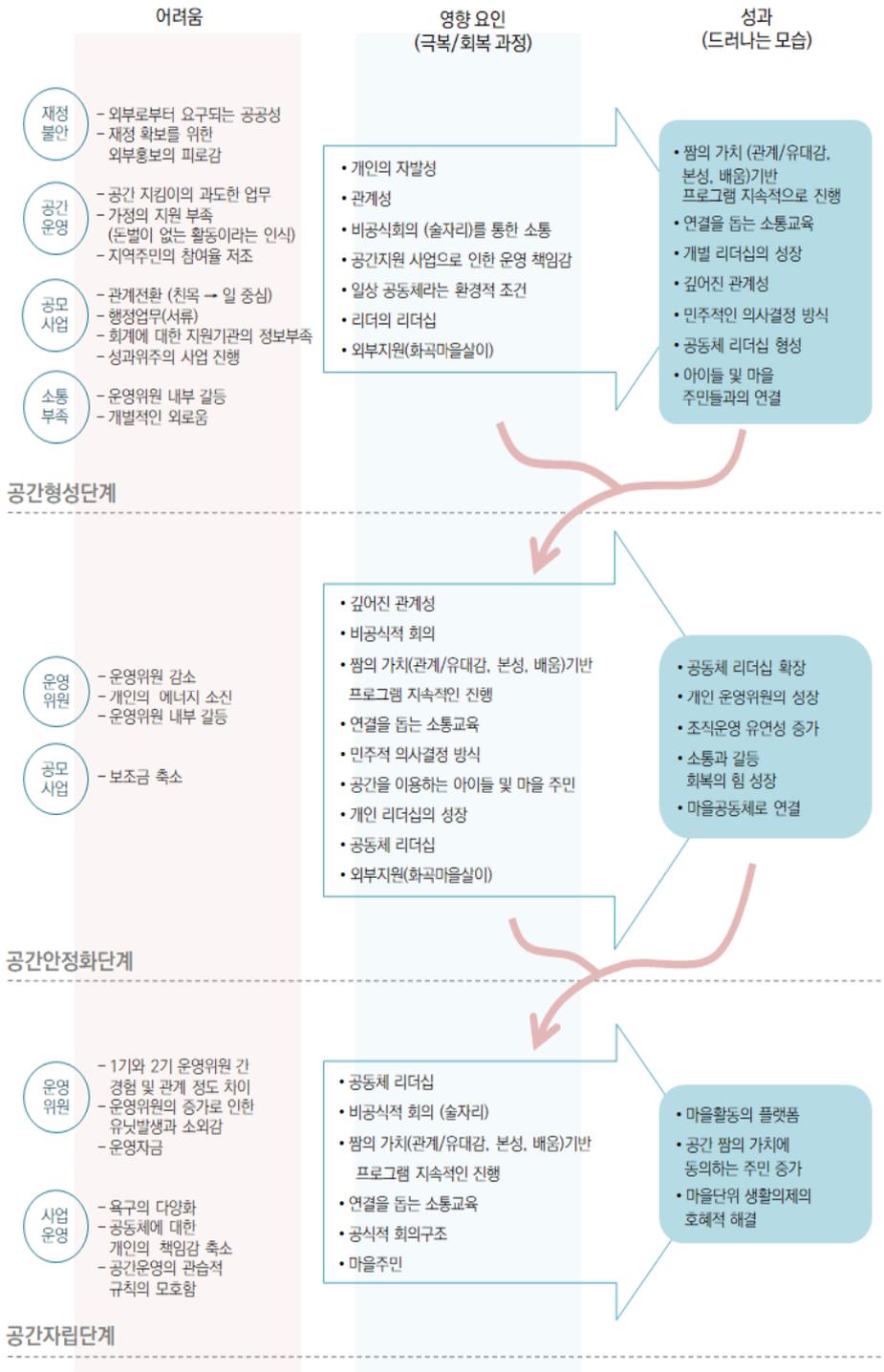
-
- ⑧ 현재와 5년 뒤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의 핵심사업이 무엇일까?
 - ⑨ 현재의 상태를 살펴보자. 현재의 자원, 어려움, 상황 등.
 - ⑩ 극복해야 할 과제는, 필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실행계획은 무엇인가?
 - ⑪ 위의 내용이 동의되는가?
 - ⑫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있는가? 필요한 과제를 항목으로 정리해보자.

03. 공간 짬의 성과와 그 요인에 대한 질적 탐구

1_공간 짬의 성과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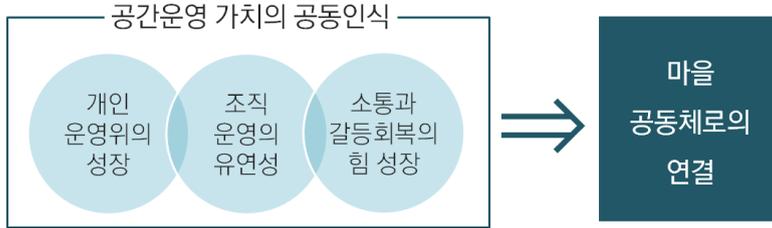
1) 분석개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20여 개의 회의록과 10여 부의 내·외부 워크숍 자료, 총 5회의 공간지원사업 제안서와 결과보고서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공간 짬 5년간 지속 운영의 성과와 영향 요인에 대해 1차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와 개별 인터뷰 질문을 도출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중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 후 필사한 파일을 반복해 읽으며 2차 분석을 시도하였다. 공간 짬 운영위원이 공간을 운영하며 ‘어려움’이 있었다고 표현한 개인적/조직적인 난관을 극복하거나 회복하면서 드러난 모습이 성과로 정리되었다. 어떤 요인을 기반으로 시작된 활동들이 성과를 낳았고, 드러난 성과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 다른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그림 3-1] 공간 팍의 5년 성과분석 개요

2) 분석 결과



[그림 3-2] 공간 짬의 5년 성과분석 결과

공간 짬의 5년 성과분석 결과를 범주화해보니 내적으로는 (1) 공간 운영 가치의 공동인식(조직(주민모임)의 정체성 형성), 외적으로는 (2) 마을공동체로의 연결이 성과로 드러났다. ‘공간 운영 가치의 공동인식(조직(주민모임)의 정체성 형성)’에는 시기별 변화가 있었고 그 외 ‘개인 운영위원의 성장’, ‘조직 운영의 유연성’, ‘소통과 갈등회복의 힘 성장’이 내적성가로 포함되어 있다.

(1) 내적 성과 _ 공간 운영 가치의 공동인식 (조직(주민모임)의 정체성 형성)

① 공동인식의 시기별 변화

[표 3-1] ‘공간 운영 가치의 공동인식’에서 드러나는 모습과 요인

드러나는 모습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리더십 형성 (공간 짬의 가치가 공동체 안에서 내재화 되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직한 자기 표현 (세상의 잣대보다 자기 본성 존중) - 소통과 회복을 중시 (공감, 질문, 자기이해, 상호이해) - 수용과 응원 (아이들 사랑방 운영, 운영위원 상호간 수용적방식) ○ 공식 회의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의사결정 - 체크인 - 선 감사서클 - 비전워크숍 - 추수회의 ○ 공간 짬의 가치에 동의하는 주민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자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금 / 아이들 사랑방 운영 - 엄마들의 자기본성에 맞는 배움의 욕구 ○ 관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 간 결속력 ○ 일상 공동체라는 환경적 조건 ○ 리더의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짬의 가치(자기본성, 유대감)를 지속적으로 상기 - 소통과 회복을 중시(공감, 질문, 자기 이해, 상호이해) - 수용과 응원 ○ 짬의 가치(자기본성, 유대감)기반 프로그램 지속적 기획 및 진행,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면탐색 프로그램 - 운영위원 욕구(재미) 및 역량회복 중심 ○ 간접지원 및 직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청과 존중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의논 - 당사자들이 원하는 짬의 가치(자기본성, 관계/유대감) 기반 프로그램에 예산 및 실무지원 - 비전/평가 워크숍 제안 및 지원

공간 짬의 핵심 목적과 비전은 마을에서 관계와 배움을 통해 본성대로 살아가며 이웃과 정을 나누는 것이다. 사전적 정의³⁾로, “본성”은 “사람이 본디부터 가진 성질”이고, “사물이나 현상에 본디부터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 한다. 복잡한 사회에 살면서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잃고 살아가기 십상인데, 이를 회복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고, 함께 배우고, 실현하면서 재미있었다. ‘마을⁴⁾’에서, ‘관계’와 ‘배움’을 통해 지향하는 바는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것, ‘정을 나누며’ 사는 것이다. 운영위원들은 그 가치를 공간 짬의 문화로 몸소 경험하며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공간 짬을 운영하면서 여러 요소를 통해, 각 개인들이 지향하던 가치를 공동의 가치로 인식하게 되었다. 운영위원들에게 공동 인식된 가치는 곧 조직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 모임(공간) 운영 초기 - 가치가 비슷한 개인들의 모임

아이들은 충분히 사랑받고 자라야 하는데 환경 때문에 못 받는 것에 대한 아쉬움 있었는데 그걸 몸으로 실천해서 만든다는 것이 멋있어 보여서 했어

- 1기 운영위원 조정림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놀고 동네 아이들이 여기서 어울리고 만일 내 아이만 데리고 놀겠다 하면 공간이 이렇게 필요 없었겠지. 그전에 생각했던 건 놀이터도 많이 나가 봤고 그 안에서 다른 아이들도 봤고 개네도 안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른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공간이 생기면 거기서 잘 놀 수 있겠다 했지.

- 1기 운영위원 허인영

그 방식으로 살고 있었고,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만나서 계속 살면 내가 원하는 가치로 쉽게 살 수 있겠다고 (….) 그때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언니네 동네로 이사 가서 아이들 대안학교 보내야지 생각하고 있었다. 숙희 언니랑 있다 보니 저 사람이랑 여기서 사는 게 우리 동네에서 뭘 만드는 게

3) 네이버 지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00978&cid=41978&categoryId=41982>)

4)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이다.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2조(정의)

더 매력적일 것 같았다.

- 1기 운영위원 허인영

○ 모임(공간) 운영 중기 - 공통 가치의 인식 과정

교육을 하겠다는 건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겠다고 나에게서 왔던 것 같아.
내가 싸움닭이라고 하잖아. 교육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는, 나를 훼손시키지
않고 문화로 가져온 거. (...) 나 혼자 가면 나만 이상한 거지만

- 1기 운영위원 문수진

○ 모임(공간) 운영 후기 - 가치의 공동인식 ▶ 발현

예전 같으면 '하지 마' 했을 텐데. 애가 무슨 얘기하는지 바라보는 힘이 생겼
다. (...) 짬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 그런 것들.

- 1기 운영위원 허인영

보혜가 인영이 바깥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가 이해하는 짬이랑
달랐다고 수진도 (그런 모습 보고) 위험하다고 언젠가부터 인영이 말하는 것
은 (곧) 짬이 말하는 거지. 짬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기 시작한 거지.

- 1기 운영위원 김숙희

그때 돈 없어졌을 때 말이야. 내가 만약 집이었으면 열쇠 바꾸고 돈 다른 데
됐을 텐데, 그때 짬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그런 방식은 바깥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방식들이니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편지를 썼지.
"너는 이런 게 필요해서 그랬니? 우리는 이런 게 걱정이 된단다." 편지
어떻게 쓸지도 같이 상의하고 물론 운영위원들의 두려움은 다 들었지. 그
당사자가 가르침을 못 받고 또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 1기 운영위원 조정림

② 개인 운영위원의 성장

[표 3-2] '개인 운영위원의 성장'에서 드러나는 모습과 요인

드러나는 모습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성에 기반한 역할경험으로 책임감 및 자기신뢰감 성장 - 재능 관련 역량강화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발견) ○ 마을로 관계성 확장 ○ 습관적 반응 → 일상에서의 새로운 시도 ○ 공동체 리더십 형성 (공간 짬의 가치가 공동체 안에서 내재화 되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직한 자기 표현(세상의 잣대보다 자기 본성 존중) - 소통과 회복을 중시(서로에게 공감과 질문으로 자기이해, 상호이해를 지원) - 수용과 응원의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성 ○ 관계성, 깊어진 관계성 ○ 비공식적 회의(술자리 등) ○ 공간지원사업으로 인한 운영 책임감 ○ 공간을 이용하는 아이들 및 마을주민 ○ 리더의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짬 가치(자기 본성, 유대감) 지속적으로 상기 - 소통과 회복을 중시(공감, 질문, 자기이해, 상호이해를 지원) - 수용과 응원 ○ 짬의 가치(자기 본성, 유대감)기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면탐색 프로그램 ○ 연결을 돕는 소통 교육 ○ 일상적 공동체(받은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

개별 운영위원들은 짬의 가치에 기반한 내면탐색 프로그램과 소통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살피고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일상 공동체였기에 배운 것을 체득하며 함께 경험하는 데 적합한 환경이었다. 습관적으로 해오던 의사소통 방식을 인지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리더가 운영위원들에게 한 수용과 질문의 경험은 운영위원들이 스스로 자기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회복하는 자기 본성의 과정에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게 되기도 한다. 운영 워크숍을 진행할 때는 “뭐 하고 싶니”, “뭐 배우고 싶니”, “이거 좋더라”는 맥락의 이야기가 나누어진다. 운영위원의 욕구에서 출발하는 프로그램을 열면 그것에 흥미를 느끼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을 새롭게 시도해볼 수 있게 짬은 응원하며 정보를 제공했고 이러한 개별 모습들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준다.

현재는 비폭력대화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운영위원, 오일테라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활용하는 운영위원, 마을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운영위원 등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분야를 명확히 알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비전 워크숍을 할 때 다들 (미래 얘기하는데) 나는 미래 없었어. 처음에는 좋았는데 마지막 시간에 완전히 터졌어. 잘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꿈이 어땠어.'

이게 무슨 비전이야 (생각이) 올라오면서 얘기한 거지. (다른 운영위원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힘이 몇 년 걸렸어. 이전에는 '네, 네. 아이구 잘하십니다.' 그런 거지.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몰랐으니까. 하다가 보니 '응?'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더 내꺼 내비쳤다. "내 꺼 포함시켜 줘" 이렇게. (...) 17년까지 강의들 많이 열었을 때 되게 많은 나를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기회였어. (...) 짬이 아니면 어디서 이걸 배울 수 있었겠어. 해보라고 하고 어디서 하면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일 공부를 할 수 있었어.

- 1기 운영위원 정보혜

③ 조직 운영의 유연성

[표 3-3] '조직 운영의 유연성'에서 드러나는 모습과 요인

드러나는 모습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운영만큼 운영위원 개인의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및 방식을 상황에 따라 조정 - 짬 내부와 외부를 함께 고려한 의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짬의 가치(자기본성, 유대감)기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면탐색 프로그램 ○ 연결을 돕는 소통 교육 ○ 공동체의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직한 자기표현(세상의 잣대보다 자기본성 존중) - 소통과 회복을 중시(공감, 질문, 자기이해, 상호이해 지원) - 수용과 응원의 문화 ○ 공식적 회의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의사결정 - 체크인 (유대감과 신뢰성장) - 선 감사서클 - 평가워크숍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운영위원 개인을 중시하는 관점이 하나의 조직문화로 드러났다. 운영의 지속성을 위해 운영위원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진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공간을 개방하는 시간의 경우 기존 주 5일 10:00~18:00에서 13:00~18:00으로 변동되었다가, 현재는 운영위원회 정기회의가 있는 요일에는 운영위원 간 소통에 집중하기 위해 주 4일(13:00~17:00)로 운영 시간을 변경하였다. 공간 운영 중기에는 운영위원의 번아웃(Burnout)이 염려되어 월 4회 정기회의를 월 2회로 줄여 진행하기도 했다. 마을 축제를 준비할 때에는 누가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운영위원이 하고 싶은 내용들을 나열/선택하여 기획하고 진행, 평가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는 공간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을 준비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운영위원 간 충분한 논의 후 사업을 기획하여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이 부분에서는 특정 지원사업을 제안한 운영위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조금 더 빠른 진행과 결속력이 필요한 경우(지원사업 기한이 짧은 시점)에도 “모든 운영위원의 의견을 들었는지(포함되었는지)”, “우리의 가치와 정말 맞는지” 등의 질문이 오가기 때문이다. 개인 운영위원의 욕구를 우선시할 때 조직의 욕구가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마을 축제를 준비하면서 개인으로서의 선택을 존중하다 보니 짬 조직으로서 진행하기로 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위원은 1~2명만 남게 되었다. 평가회의를 통해 리더로부터 이와 관련한 걱정이 표현되고 들리게 되면서 운영위원회 안에서 짬이라는 조직이 동등한 하나의 독립체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공동 인식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보통은 조직을 굴러가게 하기 위해 조직 다음에 개인으로 들어가는데 짬은 개인을 만나고 그다음에 조직으로 만나는 느낌. 공동체나 그런 걸 할 때 짬이 생각한다.

- 마을 공동주택 주민 김OO

④ 소통과 갈등회복의 힘 성장

[표 3-4] ‘소통과 갈등회복의 힘 성장’에서 드러나는 모습과 요인

드러나는 모습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방식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움이나 갈등을 혼자 감내하거나 리더에게 호소하던 방식→서클을 향해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식 - 습관적 소통(불만과 비난)→의식적 소통(원하는 것을 요청) ○ 운영위원 탈퇴과정이 조직 시스템 안에서 진행됨 ○ 소통과 갈등 관련 내부규약 有⁵⁾ ○ 타 마을모임 내 갈등해결을 지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성, 깊은 관계성 ○ 비공식적 회의(술자리 등) ○ 일상 공동체라는 환경적 조건 ○ 짬의 가치(자기본성, 유대감)기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면탐색 프로그램 ○ 연결을 돕는 소통 교육 ○ 공식적 회의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의사결정 - 체크인 / 선 감사서클 ○ 공동체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직한 자기표현(세상의 잣대보다 자기 본성 존중) - 소통과 회복을 중시(공감, 질문, 자기이해, 상호이해 지원) - 수용과 응원의 문화

교육과 리더의 안내를 통해 자기를 이해하며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고, 습관적으로 '단절'하는 방식이 아닌, '연결'의 의지를 가지고 소통하며 갈등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성장되었다. 이전에는 공간 운영과 운영위원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리더에게 토로하는 방식으로 표현했다면, 현재는 공론화를 통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궁리한다. 운영위원회의 탈퇴 과정에서도 2014년, 2017년, 2019년의 변화 모습이 드러난다. 2014년에는 단독방에서 갑작스레 당사자가 나갔고, 공식적으로 그 과정을 다루지 못했으며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 이후 내부규약에 소통과 갈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삽입했다. 2017년에 중도 탈퇴한 운영위원은 그만둔다는 의사표현을 하였고, 우선 개별적, 비공식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들어려고 했다. 그런 지난한 과정을 겪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공식 자리를 마련했다. 2019년에 운영위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경우에 처음부터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여 소통하고 결과를 존중하며 받아들였다.

어느 순간 운영위원들 간 역동이, 어느 순간 수키의 모습이 그것들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도 거리 두기가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석할 운영위원들 간의 다른 역동들이 생겼다. 수진이 마을살이 현장연구 때 운영위원들 간 역동이 달라졌는데 인영이 그러면 왜 그러지 했는데 지금은 아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지 하고 넓히고 허용하는 힘들이 점점 커졌다. 운영위원 한 명 한 명이 단단해지니까 동질 의식이 더 커져서 마을살이에 안 오니까 이제 다른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다.

- 전(前) 화곡 마을살이 대표 한순미

OO가 (공간 짬 운영위원회에서) 나간 게 저에겐 정말 충격이 컸어요. 같은 2기 운영진으로 비슷한 입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짬한테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누군가는 짬에서 얻은 게 없다고 말하고 나갔을 때 부채감도 있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더 했었어야 했다. 그러면서도 짬에서

5) 2-1. 운영위원의 지향

- ① 배움과 관계를 통해 모두가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함께 돕습니다.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
- ②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함께 실현합니다. (자기 필요를 명확히 함)
- ③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집니다. (오래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짐)
- ④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조화를 이룹니다. (다름에 대한 인정과 존중, 조화)
- ⑤ 솔직하게 소통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합니다. (소통, 소통의 의지)
- ⑥ 함께 하는 모든 일들에 응원을 보내고 감사와 축하를 찾아냅니다.

- 공간 짬의 내부규약 중

진행된 탈퇴의 과정은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잘할 수 없어. 잘 이야
기하고 잘 보내줬다고 생각해요.

그때 두 번이나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잖아요. OO의 이야기만 듣는 것
도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야기할 수 시간들
을 가지기도 하고, 짬을 할 수 있는 만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결
과가 탈퇴로 가고, 중도에 그만둔 걸로 간 것은 개인적으로 슬펐던 거죠.

- 2기 운영위원 정진영

(2) 외적 성과 _ 마을공동체로의 연결

[표 3-5] '마을공동체로의 연결'에서 드러나는 모습과 요인

드러나는 모습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활동의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간 연결 - 마을모임에 공간 대관 - 마을밥상 운영 - 마을회의, 마을축제 참여 ○ 공간 짬의 가치에 동의하는 주민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상황 시 소통을 위한 도움요청 - 관련 강좌 오픈 요청 - 새로운 운영위원회의 모집 - 공간지킴이 모집 - 공간 짬 후원사업 시 주민들의 참여도 증가 ○ 마을단위 생활의제의 호혜적 해결(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공동체 주민과의 관계성 ○ 비공식적 회의(술자리 등) ○ 외부적 직·간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주도형 지역복지모델개발 프로젝트 <화곡마을살이>의 지원 - 간접지원(주민의 고민을 경청하고 필요한, 원하는 교육을 함께 의논하여 기획하고 실무적 지원) - 직접지원(인력, 예산) - 마을 네트워크 지원(마을 인문학, 주민 리더십 교육, 주민 간담회, 마을 송년회, 마을 비전워크숍, 마을회의 등) ○ 짬 가치(자기본성, 유대감)기반 프로그램 지속적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면탐색 프로그램 ○ 연결을 돕는 소통 교육 지속적인 운영 ○ 짬 공간을 이용하는 아이들 및 마을주민

공간 짬은 지속적으로 아이들 사랑방과 가치에 기반한 프로그램(교육, 마을밥상, 재능나눔의 장 마련)들을 운영해오며 마을에 자리매김했다. 갈등과 소통 관련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 마을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 실험해 볼 수 있는 곳으로 마을주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었다.

실제 주민들을 엮어내어 모임이나 공간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짬을 통해 만나 유대감이 형성된 6명의 여성들이 각자의 재능을 기반으로 '여성과 창조적 일' 활동을 하기도 하고,

공방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짬을 통해 홍보되고 이어져서 '눈뜨라 공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공간 짬은 이러한 시도들에 담긴 가능성에 호기심을 가진다. 공간 짬 운영 중 예상하지 못한 큰 비용이 필요한 경우(공간 가벽 철거, 에어컨 설치, 빔 구입 등)에는 마을 단위에서 후원사업을 진행하여 해결하기도 했다. 마을회의에 참여하며 어린이축제, 벚꽃 좋은축제 등을 공동 주최하여 진행하고, 마을게시판, 아동청소년 교육 등 마을단위의 생활의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체로 역할을 해왔다.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친목을 다지는 역할을 하고 학원가는 짬짬이 아이들이 들러서 무료로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것 자체가 좋은 거지. 짬을 통해서 잘 몰랐던 사람을 알게 되고, 개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짬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알게 되고 연결되고 그제 소통되는 거잖아. 그제 소통의 창구 역할인 것 같은 거지. 허인영이나 조정림이나 문수진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았겠어. 리리, 리카부터, 남편들도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지만 만나면 인사하고 그러다가 바람씨다(마을카페)도 만나게 된 거고 짬이 없었으면 저 공방이 만들어졌겠어. 짬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그 기반으로 사람들을 알게 되니까. 그제 없었으면 어떻게 만들어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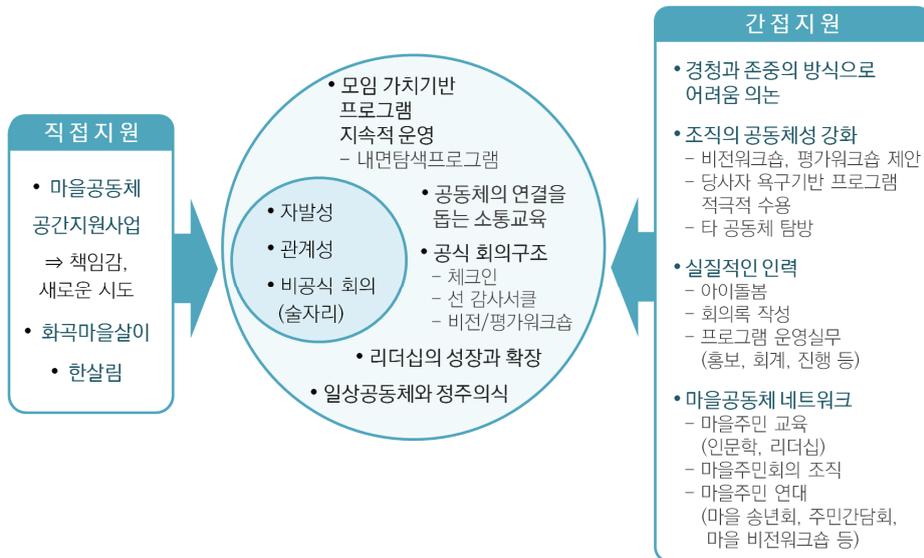
- 눈뜨라공방 대표 정○○

나는, 마을살이가 문 닫고 나서. 여기서 편하게 일했었잖아. 마을살이가 없어지고 나서 많은 마을의 모임들이 짬 공간을 사용해야 했던 거지. 그때 진짜 내가. 우리 짬 운영위원회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주장했을 거야. 내가 일해야 하고 다 짬 일이야. 내가 왜 집에 가서 해야 하고 밤에 가서 해야 해. 그 말을 잘 못 했어. 왜냐하면 그때쯤 알았던 것 같아. 마을의 공간이라서 내가 내 주장을 당연히 못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들은 그들의 어떤 일정을 포함해서 회의를 해서 다른 방식, 같이 살 방식을 궁리해야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구나. 그때쯤 알게 되었지. 마을살이가 없어지고 나서. 이곳은 정말 마을의 공간이다.

- 1기 운영위원 문수진

2_공간 짜임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본 장의 연구 방법으로는 위에서 도출된 4개의 내적 성과, 1개의 외적 성과와 관련된 요인을 공간 짜임 운영위원, 타 마을 공동체 운영위원, 후원자, 외부 지원기관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정리, 분석한다. 선행 연구⁶⁾의 기준을 바탕으로, 공간 짜임의 성과 영향 요인을 도출해 낸 결과, 주민 모임으로서의 기본 요인과 공간 짜임의 핵심 요인으로 나뉘 볼 수 있었다. 자발성, 관계성, 비공식 회의, 마을 주민은 어느 주민 모임에나 있는 기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를 기본으로 한 모임들이 어떻게 이웃 관계망을 회복하고, 마을 의제의 호혜적 해결을 돕는 마을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지 공간 짜임의 핵심 요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3] 공간 짜임의 5년 성과 영향 요인 분석 결과

6) 김경하 외(2015)는 우리나라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주민참여 그리고 주민의 관점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① 리더와 리더십, ② 직접적 외부동기 ③ 간접적 외부동기 ④ 외부자원, ⑤ 성과측정 ⑥ 학습기회 ⑦ 정주의식 ⑧ 공동체 소통과 관계성 ⑨ 공동인식과 주체성 ⑩ 공동자산 보유 민주적 조직운영 ⑪ 내부자원 ⑫ 내부동기 행정의 진정성 ⑬ 행정의 일관성 ⑭ 행정체계, ⑮ 지원조직과 사업의 법적 지위, 총 16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1) 주민모임의 일반적 요인

(1) 자발성(개인의 가치, 재미, 책임감)

아이 유치원 엄마 모임, 농구 동아리 모임, 독서 모임 등은 개인의 상황이나 취향이 비슷해 모임이 형성된 자발적 주민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재미가 있으니 모임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책임감이 생겨난다.

(2) 관계성

비슷한 가치관을 가졌거나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모임을 지속하다 보면 관계성이 생겨난다. 크로포트킨(2005)에 의하면 인간은 원래 사회적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부조와 상호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재미있는 것들을 관계 안에서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다. 어찌 보면 관계성은 인간 안에 자연스럽게 이미 있는 공공성이고, 공동체성의 다른 표현이다. 함께 하는 시간과 경험의 질이 그 관계성의 깊이와 넓이에 영향을 미친다.

솔직히 시작할 힘은 없었어. 하자고 같이 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인연들이 나는 좋았고 나를 좋아하기도 했고 같이하면 좋겠구나. 첫 번째부터는 그 여인들. 수키나 영희. 애네들 때문에 한 거지. 솔직히. 다른 사람이 “하자” 이래도 안 했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인연 두 명이 나를 잡아주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언니 들하고 하니깐 할 수 있겠구나. 마음을 가지니까 아이들이 보이는 거고, 이왕이면 우리 아이도 어차피 놀 거니까 동네 언니오빠동생 알게 되면 좋고

- 1기 운영위원 허인영

(3) 비공식 회의(술자리)

술자리를 통해 부드러워진 마음들이 더 깊은 관계성을 만들어 낸다. 평소 하기 어려운 이야기였거나, 불편한 일들은 술자리에서 푸는 경우가 많다.

(4) 마을주민

집 가까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 자체로도 이미 공동체의 씨앗이다.

2) 공간 짬만의 특별 요인

(1) 짬 가치기반 프로그램 및 연결을 돕는 교육 (내면탐색 프로그램, 소통 교육)

가치와 지향점이 비슷한 주민들이 모여 7년간 소모임을 유지한 단단한 관계라도 서울시 공간 지원 사업을 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생겨났다. 공간 짬 운영위원은 그 어려움을 이겨낸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내면 탐색 프로그램과 소통 교육을 꼽았다.

공간 짬의 교육 프로그램은 ‘세상의 쓸모’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이 왜 이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지를 반영하여 선택하였다. 주로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은 운영위원들이 지닌 가치와 부합하는 교육이었는데, 사람이 본디 가진 성질이라는 본성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었다.

관계성에 기반해 시작한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운영위원들 간 갈등이 깊어질 때면, 갈등 당사자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하면서 공동체의 문제로 공론화할 수 있었던 것도 교육 프로그램의 영향이 컸다.

필요한 것들을 갖다 쓴 것 같애. 갈등 일어나니까 갈등교육. 필요해서 쓰긴 한 것 같애. 우리 가치가 그전데. 그걸 계속 상기고 그러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인식하게 하고 교육을 하겠다는 건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겠다고 나에게서 왔던 것 같애. 내가 싸움닭이라고 하잖아. 교육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는, 나를 훼손시키지 않고 문화로 가져온 거.

- 1기 운영위원 문수진

초기에는 외부의 직접지원으로 아주 저렴한 참가비에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점차 자신들의 가치와 맞닿아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낀 운영위원들은 외부의 직접 지원이 끊겨 교육 프로그램 비용이 높아진 3년 차부터는 자기 지갑을 열어 교육을 듣기 시작했다.

초기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열었던 동학, 타로, 꿈 투사, 비폭력대화, 회복적 서클, 사주 명리학 등의 교육 프로그램은 공간 짬 운영위원들 간 공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조직(주민모임)의 정체성으로 만들어 가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 듣고 그러면서 개개인의 독창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 하나, 하나 봤을 때 나도 마찬가지로지만 '개별성'을 뛰어넘는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각자가 되게 강했어.

- 1기 운영위원 정보혜

공동의 가치를 인식해 가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나눌 수 있게 되면서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었다. 동료의식이 꽃 피고, 사적인 모임이 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화곡마을살이의 조직가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서로 좋아지게 된 거지 뭐. 아, 프로그램하면서 자매처럼 친구구나.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한 게 영향을 많이 미쳤어. 여신 같이 하고, 타로 같이 하고 술도 마시면서 삶을 나누게 된 거지.

- 전(前) 화곡마을살이 대표 한순미

이곳에선 내가 공부하는 걸 나눌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쓸쓸함. 근데 같이 타로 배우고 꿈 배우니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었어. 회복적 서클 할 때 수진 이에게 엄청 큰 동료로서 받은 거지. 내가 회복적 서클을 5년 전에 배웠거든. 그걸 동네에서도 같이 배우자고 했을 때, 그때 수진이 계속 같이 세팅하고 했어. 그러면서 서서히 공과 사. 사적인 관계에서 공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지점들이 생겨났지.

- 1기 운영위원 김숙희

공간 짬의 가치에 기반 한 교육프로그램들은 1기 운영위원들의 강한 결속력을 다지도록 했다면, 프로그램 참여 마을 주민들이 공간 짬과 느슨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 공간 짬과 관계를 맺은 마을 주민은 2기 운영위원이 되거나, 정기 후원자가 되었다.

2017년에 생각해보니 짬에서 하는 많은 것을 배웠다. 비폭력 대화, 회복적 서클, 즉흥공감극장, 여성과 창조적 활동 (...) 그런 것들 배우면서 짬이랑 가까워졌고, 그런 가치가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았고, 안심하면서 말할 수 있

는 곳, 내 아이들도 안심하면서 놀 수 있겠구나 싶었지.

- 2기 운영위원 정진영

짬에 대한 생각이 마을에 이사 오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타로하고 활동들 보고 즉흥 공감 연구, 뭐 다른 강좌들도 너무 재미있었다. 이런 거 마을에서 배우면 좋겠다 하면서 이사를 왔지.

- 2기 운영위원 엽태인

결과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공간 짬에 미친 영향을 볼 때, 공동체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그 공동체 운영위원들의 가치 지향적 프로그램일 필요가 있으며, 공동체의 깊은 유대감을 돕는 프로그램들도 필요하다. 안에서는 내면 탐색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운영위원들끼리 더 깊이 연결되었고, 밖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주민들과 느슨한 관계를 맺도록 하면서, 공간 짬이 가진 비전대로 마을 안에서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

우리가 한 프로그램들, 비폭력 대화, 꿈투사, 타로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존재로 보게 하는 거야. 그냥 역할로 A 하고 B 하고 정해 놓고 너는 왜 A를 못하니? 하지 않는 거야? A를 하는 게 어려워? 어떤 지원이 필요해? 아니면 다른 걸 해 볼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협력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경험들이 재미있고, 자신감을 얻게 하고, 존재감을 느끼게 했어.

1기 운영위원 김숙희

(2) 공식회의 구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2018년 기준 매달 첫째, 셋째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했다. 2019년 현재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정기 회의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급한 안건을 처리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한다. 어떤 안건을 결정할 때, 반대 의견이 나오면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결과를 정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소통의 의도를 가지고 회의에 임한다는 것이다. 운영위원들 간, 불편하거나 좋은 점들을 같은 선상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공간 짬의 회의는 운영위원 모두가 강강술래를 할 때처럼 둥글게 앉아 진행하는데 이것을 서클이라고 한다. “모두가

모두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모두를 향해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선과 귀와 두 손을 온전히 타인에게 내어주는 이 열린 자세(김현경, 2018; 201)”는 소통의 의도를 담은 상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4] 공간 짬 정기회의 사진

운영위원 개인의 사정으로 회의 날짜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길 경우, 회의 안전으로 올려 다 같이 의논 후 결정한다. 반기별로 비전 워크숍을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계속 확인한다. 운영위원 여덟 명의 전원 참석을 기본으로 하되, 회의 전 매번 참석 의사를 확인하고, 개인 사정에 따라 불참하는 운영위원이 있을 경우,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면 회의가 진행된다.

회의는 <1.체크인 - 2.전차회의록 - 3.보고사항 - 4.오늘 안전 - 5.체크아웃 - 6.다음 회의 확인> 순으로 진행된다. 공간 짬 회의 구조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 네 가지 정도의 중요한 쟁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① 체크인(check in) / 체크인 시간을 충분히 : 친밀한 관계

대략 3시간 동안 진행되는 회의에서 적게는 30분에서 많게는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체크인'에 할애했다. 체크인 시간에는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이 회의 전 자기의 몸과 마음, 여러 주변 상황 등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아침에 아이들을 챙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로 보내면서 생긴 일, 지난밤 남편과 다툼 이야기, 이틀 전에 누군가에게 기분이 상했던 일, 아이가 밤 새 열이 나고 토해서 한숨도 못 잔 이야기, 누군가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아 기쁜 일 등 어떤 이야기든 자유롭게 충분히 이야기하고, 다른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서로 지금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는 각 개인의 자

유의사를 따뜻하고 세심하게 존중할 수 있는 회의의 바탕이 된다. 사람마다 제각기 형편과 조건이 다르고 취향과 욕구가 다르다. 체크인은 각자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회의에서 각자 할 수 있는 만큼을 결정할 때 그대로 수용될 수 있다.

내가 내 상태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해도 괜찮다는 경험을 하고, 이곳이 안전하다는 경험들이 쌓여 각 개인의 자율성이 발현될 수 있다. 운영위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을 하고, 나머지 도움이 필요할 때, 공동체는 어떻게 지원할까 다 함께 고민한다. 공간 썸의 회의에서 충분한 체크인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수고로운 노력이 문화적 창조성의 풍부한 원천임이 증명(지그문트 바우만, 2016: 103쪽)” 되었다.

계속 물어봐 주는 거. 괜찮았냐구. 회의에서 회피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런 거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데 이거가 중요한 거야. 그런 거에 에너지를 쓰는 거죠. 보통은 그런 게 있어도 처리해야 할 것이 있으면 넘어가거나 그러는데 물어보고 다독여주고 비난하지 않고 할 만하니 했겠구나 믿어주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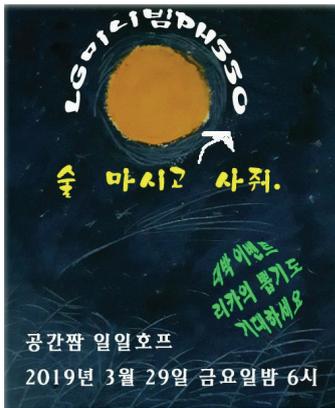
- 2기 운영위원 정진영

② **선 감사서클** : 어떤 행사를 치른 후, 감사를 먼저 나누고 나서 아쉬움을 이야기하지는 제안이 나왔다. 그래도 불만이었던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았고 서로 애쓰며 노력했는데 아쉬운 점부터 말하자 기운이 빠지고,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다. 조금씩 점점 감사부터 나누기를 계속 시도하였다. 그 경험을 작게 맛보면서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하다가 새로운 2기 운영위원이 들어오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문화로 정착되었다. 감사서클을 하고 나도 분명히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이 배움이 되는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진화하는 중이다.

③ **의사결정 방식** : “바구니 토론(유창복, 2014: 102)”

공간 썸에서 2019년 3월 일일호프가 열렸다. 운영위원 세 명이 공간에 모여 저녁밥을 지어 먹으면서, 각자 어린아이들에게 영화를 보여 주다 그 횃수가 잦아졌고, 기존의 커

다랗고 오래되어 설치가 까다로운 빔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였다. 밥 좀 편하게 먹을 방법을 궁리하다, 아이들에게 영화를 틀어 줄 용도로 가볍고 설치가 간단한 빔을 구입하기로 하고 일일 호프 “술 사먹고 빔 사줘”를 기획했다. 처음에는 쿠폰을 2천 원, 3천 원으로 만들려다, 일일 호프는 후원의 밤처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쿠폰을 1만 원으로 제작하였다. 안주는 철저히 내가 먹고 싶은 것 위주로 담았고, 술의 종류도 각자가 직접 빛은 막걸리와 맥주를 포함시켜서 메뉴를 구성하였다. 그날 운영위원 정진영은 하고 싶어 하던 뽑기를 진행하였고, 운영위원 김성희는 안주를 만들었으며, 각자 부엌, 홀, 장소 꾸미기, 사전 준비, 등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만큼 하였다. 결과는 빔을 사고도 몇 달 치 월세를 마련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그림 3-5] '술 사먹고 빔 사줘' 행사 진행

마을 축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을 할지부터 결정하기보다 축제 사전준비와 당일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를 먼저 확인한다. 사전 준비를 못 한다고 하면 못 하는 만큼, 1시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만큼만 참여한다. 마을 축제가 1년에 2회 있는데, 매년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제안하고, 그 제안에 나의 필요와 욕구가 들어가 있으니 ‘내 일’이 되는 거다. 그래야 모두가 내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할 수 있다. 필요와 조건이 다양하고,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미리 정해둔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솔직히 별로 아닌가(유창복, 2014; 104).”



[그림 3-6] 미술 축제 모습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논의는 2014년부터 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어떤 결정된 상태로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들의 욕구가 계속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했다.

희한한 거야. 서로의 개성이 강해. 그런데 개성대로, '날 맞춰와' 이런 거. 강요는 안 했지.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넌 이렇게 하고 싶어 했을 때 이 요점들을 가지고 했다.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의 개성을 무시 안 했다. 재는 원래 저러잖아. 그렇게 가는 거지. 오래 걸리더라도 관계가 한순간에 찢겨는 금방 찢진다고 생각해.

- 1기 운영위원 허인영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속도 차이가 나는 운영위원들은 동력을 잃는 경우도 있다. 이는 여전히 조직 운영의 어려움이기도 해서 계속 실험하면서 나아가고 있다.

뭔가 초반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그리고 짬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걸 찾아보고 열심히 계획서 써보고 그랬는데 여기는 다 합의해야 진행되는 거잖아. 당장 내일모레가 마감 기한인데. 짬에 좋을 것 같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거나 수키에게 얘기해. 기획서 쓰면서 한두 명한테 물어보면 "이거 우리 합의한 거야?"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포기한 적도 있어. 그런 속도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하고 싶다고 할 때 그 속도로 추진되지 못해서 재미없어지는 거.

- 2기 운영위원 엄태인

④ 비전 워크숍

Daniel C. Dennett(2015)에 의하면 어떤 것은 타인의 생각과 느낌과 목표 등에 대해 생각하도록 이끈다. 이것을 지향적 태도라 한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이해와 공감, 협동과 배려 등을 촉진한다고 한다. 공간 짬 워크숍을 통해 지향적 태도를 지닐 수 있었다. 운영위원이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과 느낌, 목표 등을 공유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매년 반복하여 질문하면서 같은 방향성을 찾는다.

(3) 관계성으로 인해 마을에 살기로 선택한 의지(정주의식)_일상공동체의 실현

화곡본동은 다세대 주택이 딱딱따다 붙어 있는 데다 특히 임대주택이 많아 사람들이 늘 떠나고 싶어 한다. 일단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떠나고자 하는 유혹이 따른다. 공간 짬 운영위원들도 처음부터 이 동네에 정붙이고 살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다. 떠나지 않고 눌러앉게 된 데는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할 이들이 있어서였다. 한번은 아이가 밤에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남은 아이를 이웃이 맡아주게 되었는데, 평소에는 아줌마들 몇 명이 그냥 어울려 지내나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남편이 감동을 받아 '이런 이웃들이 어디 있겠냐고 해서 집을 사 정착하게 되었다. 하나둘씩 이런 사연들을 갖고 인연이 더 깊어지면서 이사를 가지 않게 되었다.

이영임(2014)은 마을공동체가 성장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학습을 통한 공동체 리더의 목표와 방향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유창복(2014)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수용적 관계는 친밀감을 바닥에 깔아야 쌓인다. 함께 수다 떨고 마실 오가면서 친해지다 보면 자연스레 수용적 관계가 형성된다. 마을은 누가 숨씨 좋게 계획 세워 집 짓듯이 짜임 있게 만드는 구조물이 아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친밀하고 믿음직한 관계 그 자체”라고 했다.

공간 짬 운영위원은 모두 화곡본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같은 학교에 보내고 있다. 회의 시간 외에도 공간에서나 마을에서 만나 일상을 공유한다. 공동체는 일상 속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무모하게 쓰는 소통의 시간을 동력 삼아 굴러가는 것이다.

장글맞은 게 있어. 질척거리고 장글맞은 게 있기도 해. 내가 만약 다니는 참여연대는 저기는 끊을 수 있거든. 안 가면 저기 사람들하고도 그만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그냥 제2의 집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 마인드가 어떻

짬 운영위원들의 본성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서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 자꾸 나 혼자 뵈 하다 보면 결국은 되게 일반적인 형태로 나오거든. 다시 대표랑 얘기하면은 우리 짬 처음에 우리 마음에 들었던 쪽으로 조금씩 다가가는 형태로 되기도 하지.

- 1기 운영위원 문수진

리더는 운영위원 간 소통을 돕기 위한 질문도 많이 했다. 같은 언어라도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오해하고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는데, 리더는 모호한 표현들이 좀 더 명확해지도록 물었다. 말하고 있는 본인도 리더의 질문을 통해 명료함을 얻게 되고, 운영위원회 전체의 이해로 확장되도록 돕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런 의미라는 거야? 원하는 게 이런 모습이라는 거야?" 다시 질문을 받고 나도 다시 생각하는 거지.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해하게 얘기하지? 그랬어. 어쨌든, 질문했어. 질문해서 나도 사실 내가 얘기하면서도 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 다시 질문하면 내가 좀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지. 숙희 언니의 리더십은 모호한 이야기들이 선명해지게 질문 던지는 거. 흩어지는 걸 모으는 게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

-1기 운영위원 조정림

이곳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하잖아. 자기 혼자만 알아들으면 안 돼. 다른 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질문하는 거야. 서로 전혀 다른 언어를 쓰니까.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운영위원들 안에서 이해되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대체로 아직 무르익어서 나온 게 아니거든. 말을 하면서 서서히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질문을 하면서 점점 다듬어지고 선명해지고 그럼 다른 사람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야 서로 이해되고 함께 협력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 공이 정말 많이 들었고 힘들었어.

-1기 운영위원 김숙희

초기에는 리더의 가치를 따라간다고 생각했던 운영위원들이 자기 안의 가치지향을 질문

하는 공부를 하면서 공동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공간을 운영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초기 리더 개인에게 집중되었던 리더십이 각 운영위원의 리더십으로 성장하고 확산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공간 운영 초기에 리더는 역할과 책임감으로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지금 어떤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뭐가”라는 질문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회적으로는 연(전前) 화곡마을살이 대표 한순미의 별칭)을 찾아가 그 어려움을 드러내어 이야기했다. 그는 리더의 말을 경청하고, 여러 방안을 함께 의논해 주었고, 이러한 지원은 리더가 자기중심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비전 워크숍도 연과 상의하다가 시작이 된 거야. 어떤 어려움들을 얘기할 때 내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비전 워크숍 해보면 어떨까’ 이런 것 제안해주고 이런 서포트가 있었어.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는 비폭력대화 공부가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게 했고 연이 그것을 들어주는 스통을 하게 된 것이기도 하지. 구체적으로는 비전 워크숍으로 했지만 사적으로 순간순간 찾아오는 것들은 연이랑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런 경청을 통한 지원이 내 부에서는 고민을 나누기 어려운 그 시기의 나에게 큰 의지처가 되었어. 내 중심을 다시 회복하고 연으로부터 다른 관점을 듣고 조금 더 열린 상태에서 문제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의논해 볼 수 있었지.

- 1기 운영위원 김숙희

(5) 외부의 직/간접 지원(서울시, 한 살림, 화곡마을살이)

공간 짬이 5년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외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공간을 임대한 후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5년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암묵적인 동의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안정감을 주었다.

공간 마련 이전과 초창기에는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의 지원이 컸다. 공간 마련의 기반이 되었던 여러 가지 활동지원과 공간 마련 이후에는 매장에서 떡을 팔아 직접적인 운영자금을 지원했고, 활동가의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도움을 살피며 간접적인 지원을 했다. 또한 다른 마을 공동체 탐방을 다니도록 하면서 공간 마련에 대한 꿈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했다.

서울시 복지재단의 화곡마을살이는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활동가를 지원해 일손을 보탬

다. 마을 내부 자원을 인큐베이팅하고, 그 자원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마을 인문학 교육을 열고, 마을 회의를 꾸렸다. 그러한 자원들이 바탕이 되어 공간 짬이 좀 더 마을 안에서 연결될 수 있었다. 또 마을살이의 핵심적인 지원으로 꼽은 것은, 공간 짬 운영위원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예산 및 실무를 지원하였으며, 운영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고민을 들어 주었다. 알고 있는 정보를 주는 등의 물리적 차원을 넘어 정서적 차원의 지원이기도 하였다. 전(前) 화곡마을살이 대표 한순미는 따뜻한 리더십으로 주민이 마을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면서도 계속 의존적인 관계로 남을까 고민이 깊었다고 했다. 그의 고민은 마을 안의 관계망 형성지원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 공동체 공간의 자립성은 마을 안의 관계망과 직결된다. 따라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가 아니라 관계망을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가 중요한 이유다.

처음엔 마을 여러 모임들이 서로 경계했는데, 마을의 다른 모임들도 지원하는 화곡마을살이가 같이 모임 장을 많이 만들어줬어. 송년회도 하고, 일본으로 공동체 공간 탐방도 다녀오고 축제 끝나고 뒤풀이하고 하면서 많이 친해졌어. 마을회의 제안하고 연이 같이 상의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다. 13년에 '그대가 여신입니다'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지. 연과 상의하다가 시작된 거. 그냥 해봅시다. 해봐요 그렇게 말해줬어.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 정말 그대로 지원해줬어. 어찌 보면 나에게서 맨땅에 씨앗을 뿌리는 시기였는데 그때 나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였어. 나중에는 인영도 힘들면 연이랑 얘기 하더라구.

- 1기 운영위원 김숙희

(6) 공간을 이용하는 마을 주민 / 후원하는 주민

공간 짬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주로 초등학생이 학원가기 전에 들렀다 가거나 낫은 날씨를 피해 놀다 간다. 그 아이들이 공간 짬에서 무료로 간식도 주고, 놀고 갈 수 있어 즐겁다고 말한다. 공간 짬의 가치로 짬에 오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외부에서 공간 짬을 보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먹을 간식을 후원한다.

여기 공짜라서 되게 놀랐어요 돈도 안 내도 되고 정말 좋아요. 더울 때나 추울 때 모두 이용할 수 있고 간식도 주고 편안하게 올 수 있어서 정말 좋아

요 그래서 친구도 데려왔어요 지금이 좋아요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크면 저희가 여기를 지켜야죠

- 공간 이용 아동



[그림 3-기] 공간 이용 아이들 사진

아무래도 공동육아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애들하고 같이 하는 거. 같이 밥해먹고, 아이들 학원가기 전에 들를 수 있고 봉제산 축제도 재밌는 거 많이 하셨다. 물총으로 뭐 하면 선물 주고, 물감으로도 놀고, 다른 데 봉제산 방과후도 기운 받아서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엄마들 마음힐링. 낫설지 않았다. 엄마들이 편안해야 아이들도, 가정도...

-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주민 박OO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짧은 어른들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적인 가치로 아이들을 잘 돌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후원하는 거예요

- 공간 짬 후원자 김OO

04. 결론 및 제언

1_결론 및 제언

1) 요약과 결론

공간 짬은 2014년 서울시 마을공간지원사업을 통해 화곡본동에 공간을 마련하고 5년간 사업을 실행하였다. 6년 차에 접어든 현재(2019)에도 운영 안전성과 확장을 고민하고, 운영위원 간 소통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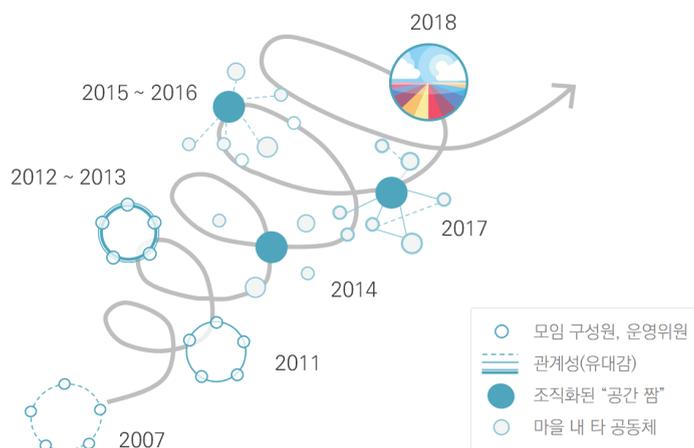
안현찬·조윤정 (2017)에 따르면 주민들이 공동체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이웃관계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실천이 늘어나는 등 마을 공동체 사업의 물리적 거점 공간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 공간 운영 유지율은 사업 종료 후 6년 차에 48.3%로 하락했다고 한다.

이에 공간 짬이 5년간 쌓아 온 회의록, 사진, 워크숍 자료, 마을공동체 공간지원사업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공간 운영의 어려움과 극복 방법, 성과 및 요인이 무엇인지 도출해 냈다. 이 과정에서 서면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경험들은 운영위원과 공간 이용자, 후원자, 마을 이웃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공간 짬의 역사를 정리하고, 성과 및 성과 영향요인에 대해 논의하면서 공간지원사업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했다. 아래는 공간 짬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공간지원사업 당사자로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공간 짬이 초기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열었던 비폭력대화, 회복적 서클, 사주 명리학, 타로, 꿈 투사, 동학 등의 교육 프로그램은 흩어져 있던 개인의 가치가 조직(주민 모임) 정체성이 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운영위원 개인이 하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 갈등을 공동체의 문제로 공론화 할 수 있는 교육, '나는 왜 이것을 하는가?' 질문하는

워크숍 등을 통해 공동체 사업을 왜 하는지 스스로 답을 찾고, 주체성을 가질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운영위원 간 연결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외부의 프로그램 참여자 역시 느슨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화곡마을살이의 조직이 역시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 하면서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근거로, 마을공동체 공간지원사업은 조직(주민모임)의 공동체성을 살리고자 하는 교육이나 사업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조직(주민모임)의 공동체성은 당사자의 가치지향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 간 관계망 회복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둘째, 공간 짬은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의 대표제안자나 사업지기들도 주민으로 보려는 관점이 절실했다. 하승우(2017)는, 사(私)가 아닌 것들을 공(公)으로 정의하고 이런 전제로 만들어진 공공성은 진정 모두를 위한 공공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공간 짬의 운영위원들은 7년 동안 마을 안에서 아이들을 기르며 끈끈한 유대를 경험하고 있었고, [그림 4-1]에서처럼 이미 공공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나선형의 성장 과정 중에 갈등과 진통을 겪고 있었다. 외부자의 시선에서 공간의 공공성이 출발한 시점과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는 외형일지라도 질적으로는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성장했다. 매튜D. 리버(2015)는, '자기'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고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메커니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자기'는 사회적 응집력을 밑받침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한다. '나'라는 것이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을 공동체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림 4-1] 공간 짬의 나선형 성장

셋째, 1기 운영위원들의 FGI 중, 공간 운영의 실질적인 어려움은 돈이 아니라 운영위원 간 관계나 행정 조직과의 소통과 지원이 핵심으로 드러났다. 돈 버는 것도 어려운데 관계까지 어려우니 재미있자고 한 일이 버겁기 시작해 탈퇴한 운영위원이 생기기도 했다. 그 관계의 어려움을 풀어가는데 공을 들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로 사람 관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듯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본질이 중요하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다양한 역동이 존재하는 공동체를, 어떤 세부 사업을 얼마나 했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참여했는지, 사업비가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되었는지, 무엇을 ‘측정’하는 것일까? 단순히 결과 보고서 안에 회계 처리, 늘어난 사업 참여자 수 등을 담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의 행정 능력을 키우는 것 외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간 짬의 경험으로 볼 때 공동체의 공간 유지에는 돈도 필요했지만, 사람이 더 필요했다. 공간의 운영 가치가 뚜렷하고, 그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유대감이 형성되면 운영을 위한 물질(돈)이 따라오는 경험을 5년간 해 왔다.

2) 공간자원사업 초기 공동체성 강화사업 필수 배치

일반 주민 모임과 달리 공간을 운영한다는 것은 많은 물리적, 인적 자원이 필요하고, 자원의 호혜적 상호작용이 절실하다. 갈등을 다루지 못해 단절되어 사람들이 흩어질 때 공간이라는 유기체가 남게 되는데 이는 그동안 들여온 많은 정서적, 물적 자원의 손실이다.

(1) 조직(주민모임) 정체성 형성 프로그램

조직(주민모임)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내용(관련 교육, 비전 워크숍 등)이 필수 사업의 주제로 배치되어야 한다. 조직(주민 모임)의 내실을 다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의 가치가 무엇인지,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스스로 그리고 함께 인지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2) 조직(주민모임) 정서적 유대감 심화 프로그램

정서적 유대감의 깊이를 돕는 내용(내면탐색 프로그램, 소통교육 등)이 필수사업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운영위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은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한 측면인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솔직한 이해를 조직 안에서 나누는 것이 그

깊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의사결정을 통해 함께 협력하여 일해야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대화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달라진다. 유대감 없이는 ‘존재’가 아닌 ‘역할’ 위주로 사업이 운영되며, 그럴 때 공동체의 생기와 생동감이 사라진다. 이는 공동체 공간 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게 한다.

3)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개선 필요

(1)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실무자의 역할

넓은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참여자의 숫자나 새로운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하는 외부적 활동의 양적평가로 공공성을 확인하기보다, 질적인 변화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공간 역시 하나의 유기체로서 숨을 내쉬며 밖으로 좀 더 확장하는 시기와 숨을 들이쉬며 내부로 몰두하여 충전하는 시기가 있다. 그리고 특히 공간지원사업이 마을에 정착하기 위한 시작 시기에는 두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운영 당사자들이 진행하기 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하고 지원한다. 둘째, ‘공모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기존의 모니터링, 회계 위주의 컨설팅보다는 공간이라는 유기체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의사결정, 소통, 비전 워크숍, 관계망의 확장과 깊이를 위한 주제들이 우선적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실무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간 운영 당사자인 주민의 입장을 존중하며 경청하는 일이다. 그래야 당사자들의 주체성에 기반하여 공간 운영의 시기별, 맥락적 특성에 적합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마을에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연결해주는 지원들은 공간(지원 사업)이 마을에 정착하고 마을과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활동으로 스스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2) 현장의 역동을 반영한 유연한 행정

안현찬·구아영(2017)에 따르면, 마을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층은 여성, 3~40대, 중산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중 여성 비율은 73%이고, 공간 짠 운영위원의 경우도 대부분 여성이며 양육자이다. 공모사업 참여 주민의 필수 참여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주민의 일정을 존중하여 시간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사업 예산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큰 구조적 틀은 두지만 세부적인 것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월급을 받고 가족 살림을 꾸리는 데 있어서도 계획대로 쓸 수 없는 것이 일상의 불확실성인데 마을에서 예측 가능하지 않은 활동의 과정에 대해 상세명세

서를 요청하는 것은 주민 피로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공간 운영 활동가에 대한 현실성 있는 노무(勞務)비

인건비란 사람 인(人), 물건 건(件), 쓸 비(費)의 한자를 사용하여 “사람을 부리는 데 드는 비용⁷⁾”라는 의미이다. 이보다 노무(勞務)⁸⁾비라고 칭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공간 운영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것이 공간 활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눈에 보이게 된 일 안에는 보이지 않게 쓰이고 사용되는 생각보다 많은 수고와 노동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상과 인정이 필요하다.

(4) 대등한 협력

공간지원사업을 통해 안정기에 접어든 공간의 경우 이미 마을 안에서 전문화된 특성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한 공간을 운영해온 주민은 소위 ‘마을활동가’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활동가와 대등한 파트너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마을공동체의 실제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로 자문을 요청하거나, 프로젝트성 사업을 함께 의논할 수 있다. 공모사업 종료 후 활동가의 강화된 역량이 협치의 과정에서 발휘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5979&cid=40942&categoryId=31847>

8) 체력 또는 정신력을 들이는 일 - 한글오피스 사전

2_ 시사점과 한계

본 연구는 서울시 마을 공동체 공간지원사업으로 조성된 화곡본동 공간 짬의 5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공동체 공간의 사례를 포함시키지 못했다. 또한 운영위원과 공간 짬에 호의적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한 쪽의 관점에서만 서술한 데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기존 전문가들이 마을 공동체 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업 참여 당사자로서 경험을 정리하고 목소리를 내는 시도 자체만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 당사자가 사업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연구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일은, 하승우(2017)의 말처럼, 누가 내게 무언가를 보장해준다는 시혜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우리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겠다는 자치(自治)의 관점으로 전환이 일어난 것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

다만, 공동체 공간에는 그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어, 마을 공동체와 공동체 공간이라는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공동체를 처음 접하는 이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 염려가 있다. 우리의 경험이 필요한 사람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탓이다.

부록

1. 공간 짬 운영위원 1기(2014년~현재)

F.G.I 대상	공간 짬 운영위원 1기(2014년~현재)
질문지	
①	2014/2015/2016/2017 시기별로 떠오르는 어려운 사건, 갈등상황들이 있나? -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에서 - 그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나? - 그렇게 어려웠는데 계속 한 어떤 이유가 있나?
②	공간 짬의 성과는 운영위원 개인의 성장과 공간 짬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먼저 개인적인 성장은 어떤 게 있는가? - 그 개인적인 성장이 공간 짬의 가치인, '본성대로 살아가기'에 동의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봐도 되나? - 그 가치는 어떤 행동을 통해 구체화 되고, 실현되고 있는가? - 짬의 어떤 요인들이 본인을 짬의 가치에 동의하는 과정으로 이끌었다고 생각되는가? - 개인의 성장이 조직의 성장에는 어떤(혹은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사례중심)
③	공간 짬이 개인적인 공간에서 마을 차원으로 확장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떤 것이 영향을 미쳤는가? 짬 프로그램? 외부 지원(한살림, 화곡마을살이, 서울시 사업비)? 다양한 내·외부의 지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
④	공간 짬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 있나? 짬의 마을 안의 역할?
⑤	새로운 운영진이 들어온 것은 짬에 어떤 의미인가.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2. 공간 짬 운영위원 2기(2018년~현재)

F.G.I 대상	공간 짬 운영위원 2기(2018년~현재)
질문지	
①	운영위원회 이전에 공간 짬 이용자일 때 공간 짬의 운영가치(본성대로 살아가기)를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나 경험이 있는가?
②	짬 이용자에서 운영자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나 이유는?
③	짬 운영위원회로서 어려움, 갈등상황이 있었나? (개인적 어려움과 조직적 차원의 어려움으로 나눠서)
④	그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회복했나? 어떤 도움들이 있었나?
⑤	계속 하는 이유는?
⑥	짬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되는가? 그 사례는? - 성장에는 어떤 요소가 도움이 되었나? - 성장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내가 그 것을 어떨 때 알 수 있는가?
⑦	공간 짬은 마을 안에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되는가?

3. 인터뷰 질문지 최종본

인터뷰 대상	질문지
중도 탈퇴 운영위원	① 짬 운영진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② 무엇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이 극복되었을까? ③ 짬 운영진을 탈퇴하면서는 어떤 아쉬움이 있었나?
외부지원 기관 (화곡마을살이)	① 어떤 이유로 짬을 지원했나? (짬을 지원하려고 할 때의 비전) ② 공간 짬의 어떤 부분을 지원하려고 했나? ③ 지원하면서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었나? ④ 지원자로서 생각하는 짬의 성과는 무엇인가?
공간 짬 후원자	① 짬을 알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② 짬을 “후원하고 싶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 (짬의 가치 중심) ③ 짬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가? 있다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없다면 그 이유는? ④ 짬에 참여와 후원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가?
공간 짬 지킴이	① 지킴이를 언제부터 하였나? ② 지킴이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③ 지킴이를 하면서 보람이라는 것을 느껴보았나?. 그렇다면 그 일(사건/경험은 어떤 것이 있나?) ④ 지킴이를 하고 난 후 짬의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이 있나? 그렇다면 달라진 배경요인은 무엇인가? ⑤ 짬을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하거나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나?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마을 내 타 공동체 주민	① 짬을 알게 된 계기 ② 짬과 연대한다고 느끼게 된 계기 ③ 짬을 생각하면 어떤 키워드들이 떠오르는가? 짬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④ 짬의 가치와 운영내용들이 마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가? ⑤ 마을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싶을 때 공간 짬이 생각나는가? ⑥ 짬 운영위원의 전문성이 공동체로 발현되었다고 느낀 지점이 있는가? ⑦ 마을에서의 짬의 역할, 성과 ⑧ 마을의 공공적인 공간으로써 짬의 개선사항

참고문헌

- 안현찬·구아영, 2017, “서울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 안현찬·조윤정, 2017, “서울시 공동체 공간 지원 사업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 안현찬·조윤정·채혜인, 2019,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민자원 활용 촉진방안”, 서울연구원
- 크로포트킨, (김영범 역), 2005, 「만물은 서로 돕는다」, 르네상스 <Peter Kropotkin, 1902, Mutual Aid: A Factor of Evolution>
- 리처드세넷, (김병화 역), 2013, 「투게더」, 현암사 <Richard Sennett, 2013, Together>
- 우미숙, 2014, 「공동체 도시」, 서울 연구원 미래서울 연구 총서, 한올아카데미
- 유창복, 2014,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휴머니스트
- 김현경, 2018, 「사람, 장소, 현대」, 문학과 지성사
- 권단 외, 2014,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 삶창
- 정기석, 2016, 「마을 전문가가 만난 24인의 마을주의자」, 펍북스
- 하승우, 2017, 「공공성」, 책세상
- 조현, 2018,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한겨레출판
- 지그문트 바우만·리카르도 마체오, (나현영 역), 2016, 「지그문트 바우만, 소비사회와 교육을 말하다」, 현암사 <Zygmunt Bauman·Riccardo Mazzeo, 2012, On Education: Conversations with Riccardo Mazzeo>
- 대니얼 데닛, (노승영 역), 2015, 「직관펌프, 생각을 열다_ 대니얼 데닛의 77가지 생각도구」, 동아시아 <Daniel C. Dennett, 2013, Intuition Pumps And Other Tools for Thinking>
- 매튜 D. 리버먼, (최호영 역), 2015, 「사회적 뇌 인류 성공의 비밀」, 시공사 <MATTHEW D. LIEBERMAN, 2013, Social : [why our brains are wired to connect]>
- 김경하·백종인·손철희·반영운, 2015, “마을 만들기의 주민 참여 활성화 요인 도출”, 도시행정학보, 282
- 김양현, 2016, “마을경관개선사업에서 나타나는 주민참여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 유창복, 2013, “서울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의 배경과 과제”, 환경철학
- 이영임, 2015, “학부모학습동아리에서 지역공동체운동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 안산 석호초등학교<도서관도움어머니회>와 <감골주민회>를 중심으로
- 성순아·오후·황희연, 2015, “마을경관 개선사업에서 나타나는 주민참여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 오영완, 2017,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활동이 지속적 참여 동기에 미치는 영향분석: 청주시 사직2동을 중심으로”
- 신중진·송승현, 2010, “지역공동체에서의 주민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참여자 유형을 중심으로- 참여주체와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 최우혁, 2016,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추진주체의 관계구도 특성연구”
- 구경하, 2016,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주체별 역할 중요도 분석을 통한 수법 - 마을공동체 활동 활성화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 이근미, 2019,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 가능한 요인에 관한 연구 : 안산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작은연구 좋은서울 19-05

**화곡본동 공간 짬의
공동체 활성화 요인과 정책제언**

발행인 서왕진

발행일 2019년 11월 24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